Life p/14

겨울 패션 발끝에 포인트

metro

메트로 2014년 11월 4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8

돌아온 MC몽 음원 '올킬'

첫눈 내린 한라산에 상고대 활짝 올 가을 들어 한라산 정상부에 처음으로 눈이 내린 3일 등반객들이 한라산 구상나무 숲(해발 1천700m) 일대 나무에 달린 상고대를 카메라로 찍고 있다 /연합뉴스

예고된 '단통법 무력화'… 소비자 분통

아이폰 6 10만원대 판매 예약 개통 취소 사태까지

시간 지나면 정착 된다던 당국 믿고 산 고객만 호구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 국민의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시작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국민들의 분노지수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보조금 대란'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약 개통 취소와 기기 회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단통법으로 인한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 일부 휴대전화 관련 사이트와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서 지난달 31일 출시된 아이폰6 16GB 모델이 동시다발적으로 10만~20만원에 판매됐다. 출시 단 하루만에 헐값에 팔려나간 것이다.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하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와 과징금 부과,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보조금 지급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과 불법 보조금 지급 현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정부부처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행태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단통법 시행 직후부터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미래부와 방통위는 "시간만 지나면 나아질 것"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여러차례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침체된 시장 회복을 위해 이통 3사는 아이폰6 출시와 더불어 다양한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지원금도 상향했다. 이로 인해 최근 단통법이 국민 전체를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는 목소리도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그저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이라는 규제만을 만들고 민간 사업자 뒤에서 뒷짐만 진채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뒤지만 막상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하자 당시 몇시간 동안 줄을 서서 아이폰6 예약 구매를 했던 일부 고객은 계약 취소를 통보받았다. 1일 저녁에 계약해 제품을 받은 고객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2일 새벽에 예약한 고객들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단속에 떠밀려 계약이 취소됐다.

결국 어둡은 '국민이 다 같이 호갱이 되야 좋아하는 미래부와 방통위'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이번 아이폰6 대란은 제품 출시 이전부터 예고됐다. 그동안 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시장에서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출시는 이통 3사에게 있어 경쟁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 올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통 3사는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 출시일에 맞춰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다. 1호 가입자에게는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되고 조기 예약가입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부여됐다.

휴대전화 유통점에는 아이폰6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 유통점은 고액의 인센티브 일부를 활용해 고객에게 공시가를 넘어선 보조금을 지급했고, 정부부처는 뒤늦은 단속에 나섰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통3사 간 경쟁 심화를 보면서 오히려 출시행사에서 다뤄진 사은품 등도 불법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엄격한 법을 적용해 과징금 등 처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점에서도 1일 저녁에 아이폰6 계약을 체결한 이들에겐 제품을 곧바로 넘겨줬지만 2일 새벽 예약가입 형태로 계약한 이들에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약 취소 통보를 했다.

한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는 "2일 새벽 2시 이후 예약가입 형태로 계약한 고객은 계약 취소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은 내놓지 못한 채 단통법을 이용해 많은 국민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서울도 내년부터 '9시 등교'

조희연 교육감, 학생 자치와 건강권 방안 제시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내년 1학기부터 9시 등교를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서울 학생자치와 건강권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2015학년도부터 서울교육청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을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9시로 늦출 수 있도록 대토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9시 등교' 실시를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TF를 구성하고 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한다.

또 조기 등교하는 학생을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지도교사를 배치하며 아침운동이나 독서활동 등 다양한 아침활동 담당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고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면과 휴식으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학교별 토론을 올 연말까지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 8일에는 9시 등교 시행 계획을 안내한다. 2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다혜기자

알림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
독자 200명 힐링으로 초대

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송년음악회가 열린다.

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헨델 메시아&베토벤 합창'이 오는 27일 오후 8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무대에 오른다. 이번 음악회는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사고 등으로 아픔이 많았던 해인만큼 '쉼'과 '힐링'을 주제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레퍼토리로 채워질 예정이다.

서희태가 지휘하는 밀레니엄 심포니오케스트라와 서울시합창단이 헨델의 메시아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연주한다. 지휘자 서희태는 MBC 인기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주인공 강마에의 실제 모델이자 예술 감독을 맡았다.

또 바리톤 김동규, 테너 신동원,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등이 무대에 올라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을 노래한다.

메트로신문은 이번 음악회에 독자 200명을 초대한다. 오는 12일까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100명(1인 2매 증정)을 추첨한다. 당첨자 발표는 13일이다.

metro

원전기술 첫 유럽 간다

250억원 네덜란드 원자로 수주계약 체결

250억원 규모의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개선사업 수주계약이 3일 한국·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 체결됐다.

이 사업은 55년간의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사상 유럽지역으로 첫번째 원전기술 수출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국빈방문 중인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가 발주한 '델프트 공대 연구로 개조 및 냉중성자 설비 구축사업' 계약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개선사업은 델프트 공대에서 운영 중인 연구용 원자로를 개조하고 냉중성자 연구설비를 2018년초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은 250억원(1900만 유로)에 달한다.

이번에 최종 계약을 맺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은 지난 6월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건설사공에 착수, 2018년 초까지 설치·시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델프트 공대는 이날 방사선 안전과 원자로 기술개발, 연구용 원자로 활용, 방사선 의학 동위원소 기술 등의 분야에서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또 원자력과 풍력 등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참여한 네덜란드 기업을 통해 양국 기업 간 호혜적 협력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물포럼과 네덜란드 물 파트너십 간 물분야 협력 MOU도 체결, 물산업 해외진출 경험이 풍부한 네덜란드를 통해 양국 물 관련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도 모색하기로 했다.

/서현욱기자 cpelane@metroseoul.co.kr

악수 청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한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부인 막시마 소레기에타 왕비와 정상회담 전 악수를 청하고 있다. /뉴시스

'비정상회담' 기미가요 논란

기자 수첩
전 효 진
<연예스포츠부 기자>

기미가요 논란에도 JTBC '비정상회담'은 3일 방송된다. 폐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이 어떻게 시청자를 설득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비정상회담'은 지난 17회에서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비난 받고 있다. 이에 JTBC 측은 프로그램 책임 프로듀서 연출자를 보직해임과 경질하기로 했다. 기미가요를 선택한 프리랜서 음악감독에 대해서도 업무계약 파기 결정을 내렸다. IPTV와 각종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에서도 17회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기미가요는 일본 천황 시대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노래다. 한국 방송에서 기미가요가 흘렀다는 건 방송 사고 이상의 사건이며 프로그램 폐지 운동도 지나치지 않다.

외신도 이 논란을 보도했다. 특히 소식을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알아줘서 고맙다" "당연하다"는 조롱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일간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도마에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셈이다. 한류 시대에 언론인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중한 태도가 더욱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감정적이고 지나치다" "폐지만 하면 끝인가"라는 폐지 반대 의견도 있다. '비정상회담'의 본질은 외국인 청년들이 각국의 문화 차이를 공유하면서 편견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폐지보다는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고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게 순서라는 입장이다.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비정상회담' 존폐는 시청자에게 달렸다.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JTBC의 사과와 실천이 시청자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지 두고 볼 일이다.

철원 포함 7개 군사보호구역 축소·완화

군·지자체 첫 협업회의… "경미한 설계변경 간소화"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일대를 비롯한 전국 7개 군사보호구역이 축소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3일 오후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재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참, 해당 지역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협업회의를 개최, 군사보호구역 축소·완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와 사요리(5사단), 홍천군의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인제군 지방도 453호선, 경기도 고양시 60사단과 61사단, 서울시 51사단, 경북 포항시 해군 6전단 지역 등이다.

철원군의 2개 지역은 백마고지 전적비에 대한 관광객 증가와 지역 발전을 고려해 군사보호구역을 줄이고 홍천군은 과학화전투훈련장 이내로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제군의 지방도 453호선 지역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사보호구역 내 측량과 출입 허가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미한 설계 변경 때 군과 협의를 간소화하고 군의 검토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다혜기자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검토계획

반기문 총장 야권 대선후보 출마하나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은 3일 최근 일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측근들이 반 총장의 야권 대선후보 출마 문제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권 고문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최고록 '순명' 출판기념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반 총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반 총장이) 새정치연합 쪽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쓰겠다(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하기에 '반 총장을 존경한다. 그만한 훌륭한 분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권 고문은 "우리가 (반 총장을) 영입할 때 경선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했고, "다른 후보들과 같은 위치에서 경선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론이다. 그 것이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윤다혜기자

"연금개혁 10년 늦으면 39조 더 부담"

이한구, 야당 협조 촉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태스크포스)를 총괄하는 이한구 의원은 3일 공무원연금개혁을 10년 늦추면 정부의 재정부담액이 39조원 늘어나게 된다며 즉각적인 공무원연금개혁과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향후 10년간 정부의 누적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133조원이나, 새누리당 연법안에 따르면 총재정부담은 94조원으로 39조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연금부담금은 재직기간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동일한 비율로 정부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보전금은 공무원연금의 연금수입보다 연금지출이 커서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 지원액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지금 서둘러 연금개혁을 못하면 정치일정상 향후 10년간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만일에 10년 뒤에나 연금개혁이 된다면 지금 하는 것보다 39조원이 더 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오답노트 정리 꼼꼼히"

수능 D-9 복습전략

"연계 출제율 70% EBS 교재 복습도 중요"

11월 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열흘도 안남았다.

입시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에는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동안 풀었던 문제와 오답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수능 시험 순서에 맞춰 영역별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수능 마무리 시기에는 새로운 문제를 풀다 틀리면 오히려 자신감만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난다.

지금껏 틀렸던 문제집을 다시 보며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올해 수능의 출제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

수능 시험의 EBS 교재 연계 출제율이 70% 정도로 높은 만큼 남은 기간에 EBS 교재를 다시 훑어봐야 한다.

국어영역은 개념서를 들여다보지 말고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자세로 EBS 수능 연계 교재의 틀린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수학영역은 남은 기간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2회 정도만 풀고 그 이후에는 EBS 교재와 오답노트를 복습하는 것이 좋다.

영어영역은 감각적인 측면이 중요한 과목인 만큼 실제 시험 전까지 매일 꾸준히 10분에서 20분 만이라도 듣는 연습을 해야 한다. 기출 단어를 위주로 학습하고 사람에 자주 출제되는 구문을 소리 내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동안 이 순서에 맞춰 비슷한 시간대에 해당 영역을 공부하는 것이 실전에 도움이 된다.

/윤다혜기자 yoh@metroseoul.co.kr

"자사고 지정 취소 철회하라"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자사고 지정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지정 평가대상인 서내 14개 자율형 사립고 중 6곳을 지정취소하고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해 2년간 지정취소 유예 결정을 한 바 있다. /연합뉴스

학교에 봄·가을 단기방학 생긴다

교육부 4가지 모형 -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

내년 새학기부터 봄·가을 단기방학이 도입되거나 기존 학년 말 방학이 없어지는 대신 겨울방학이 길어지는 등 방학이 지역별·학교별로 다양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학사운영 다양화·내실화 추진계획'을 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학년 또는 학교급이 바뀌는 2월의 형식적인 수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학사운영 모형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해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했다.

▲매월 하루나 이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거나 휴업하는 월별 단기체험(방학)형 ▲1학기와 2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일주일가량 방학하는 봄·가을 단기방학형 ▲2월에 수업을 아예 하지 않거나 종업식 또는 졸업식만 하는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앞선 세 가지 모형을 2개 이상 혼합해 운영하는 혼합형 등이다.

교육부는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교별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학사운영 모형을 결정하도록 했다.

/윤다혜기자

당뇨 특허약이라더니…

허위 광고로 105억 챙긴 일당 적발

일반식품을 당뇨병 치료와 성 기능 장애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10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3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김모(55)씨 등 37명을 검거했다.

김씨 일당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반식품인 '해왕엑스골드' 등을 성기능개선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팔아 10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하면 속칭 '바지사장'을 자수시켜 부당 이득금을 축소 신고해 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벌고, 그 기간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면 '이미 자수했다'고 둘러대 영업을 계속 하는 등 수사를 교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일반식품은 건강에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약효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다혜기자

국과수, 신해철 1차 부검 결과 발표

"전공, 복강 내 유착수술서 발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일 "고 신해철의 부검 결과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故신해철의 시신 부검을 마친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과수 최영식 소장은 이날 오후 양천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1차 부검 결과 브리핑을 열어 "천공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외상, 질병 등이 흔한지만 신씨의 경우 (위 용적 축소) 수술 부위와 인접해 발생했고 부검 소견상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의인성 손상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검 결과 신씨의 심낭 내에서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으며 화농성 삼출액이 동반된 심낭염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국과수는 또 신씨가 생전에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을 받았으며 천공이 이 수술 부위의 인접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다만 "이번 결과는 1차 부검소견에 의한 것으로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인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후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치된다. /윤다혜기자

14년 투병 끝 숨진 경찰관 아내 경찰 특채

검문 중 음주차량을 추격하다 부상을 당해 14년 투병 끝에 숨진 경찰관의 아내가 경찰에 특별 채용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고 신종환 경사의 아내 임모(51)씨를 무기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생전에 남편이 근무한 광주 광산경찰서 경무과에서 복지 담당 업무를 맡는다.

경찰은 신 경사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법상 '부상을 입어 퇴직한 뒤 3년 내 사망하지 않으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유족보상금 신청 대상이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생계 지원을 위해 취업을 알선했다.

신 경사는 2001년 3월 광주 광산구 심도파출소 앞 검문소에서 범죄 용의차량을 추적 중 순찰차가 뒤집히면서 중상을 입고 14년간 투병생활을 이어오다 9월 사망했다.

/윤다혜기자

지난달 31일 한국장학재단 비전홀에서 열린 '국가근로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이대희 상임이사(가운데 아래)와 국가근로 우수 대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제공

국가근로장학금 수기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한국장학재단은 지난달 31일 한국장학재단 비전홀에서 '2014년 국가근로장학금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730편의 수기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3편 포함, 최종 33편의 작품이 선정됐다.

'내 청춘의 2막'이라는 수기로 최우수상을 받은 부산대학교 류주연 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을 통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청춘의 2막을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마음혈액원 헌혈증진공모전 시상식

지난달 27일 경기도 과천 한마음혈액원에서 진행된 '헌혈증진 공모전 시상식'에서 (오른쪽부터)홍유선 한마음혈액원 원장, 김송이 성신여대 학생, 박성원 부 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성신여대 제공

성신여대 모바일 헌혈 앱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성신여대는 산업디자인과에 재학중인 구도은, 김송이 학생이 '제1회 헌혈증진공모전'에서 작품명 '모바일 헌혈 앱, Red Spot'으로 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모바일 헌혈 앱, Red Spot'은 헌혈 참여 인원의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헌혈 참여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헌혈에 관한 정보와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탑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또 헌혈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헌혈 예약시스템도 탑재 가능하다.

"청소년들이여! 이유있는 꿈 가져라"

대학 입시와 취업 스펙쌓기로 과열 경쟁된 한국 교육사회에서 당당히 경험과 스토리를 외치는 청년이 있다. 고졸 학력이 전부인 그는 오로지 노력만으로 21살에 티켓몬스터 최연소 팀장, 22살 그루폰 한국지사 본부장을 역임하면서 억대 연봉을 거머쥐는 등 소셜커머스계의 전설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진로·직업 전문 멘토링 회사를 창업해 운영 중이다. 교육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아이엔지스토리 강남구(25) 대표를 만났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아이엔지스토리 강남구(25)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메트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초고속 승진 '고졸 신화' 주인공··· 진정성 어필로 학생·학부모 지지
젊은 친구 이야기 알리려 창업··· "스펙 아닌 스토리로 승부를"

◆ "스펙 아닌 스토리가 경쟁력"

무엇을 하고 싶은 지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성적에 맞춰 대학에 진학하는 보통 학생들과는 달리 그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성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거에 나가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다. 저는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한 것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공부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대학을 포기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창업을 시작했다.

"창업을 4번 정도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던 중 마지막으로 창업했던 회사의 인연으로 티켓몬스터 신현성 대표님을 알게 돼 티켓몬스터에 입사하게 됐다.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이 전부이기 때문에 영업부터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티몬에서 영업으로 1등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 소문이 났고 48개국으로 진출한 그루폰으로 스카웃됐다."

영업 1등이 되기까지 그도 처음에는 힘들었다. 한 군데 계약을 하기 위해 50~100번 방문은 기본이었고 고졸 학력 때문에 무시를 당한 경험도 수없이 많았다.

"시업가가 되고 싶어서 CEO들을 찾아가면 '열심히 하면 돼'라는 말만 돌아왔고 어리다고 받아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열심히'라는 말이 최선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산전수전을 겪으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는 젊은 나이에도 고액 연봉 등을 받으며 성공가도를 달렸으나 끝내 그만뒀다.

"아무리 글로벌기업이고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만 경영 방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회사에 더 이상 다닐 수 없었다."

◆ "이유있는 꿈을 꿔라"

"누군가에게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는 이같은 생각으로 진로·직업 전문 멘토링 회사인 아이엔지스토리를 창업했고 최근 1주년을 맞았다.

아이엔지스토리는 1년 만에 학교·기관 등 360곳과 계약을 맺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또 현재 아나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99개 직업군 500여명의 현직 직업인들이 소속돼 있다.

아이엔지스토리에 소속된 강사들은 모두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꿈이나 희망 직업을 적어보라고 하면 전문직 등 직업 30개 안에서 각각의 꿈을 적는다. 결국 어느 것이 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30개 직업은 상위 20% 밖에 못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렸을 때는 꿈이 있었는데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 꿈이 없어졌다고 한다."

"저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유있는 꿈'을 가지길 바란다. 그동안 알고 있던 직업말고 다양한 직업 등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싶다. 저는 제 성장과정안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학생들은 시행착오를 덜 겪고 더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이런 진정성으로 학생들은 물론 학교 선생님, 학부모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이 곧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강남구였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나 스펙 아닌 자신의 스토리로도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입증하고 싶다."

TBWA코리아 대표 이수원 전무 선임

국내 최고의 다국적 독립광고회사인 TBWA코리아가 광고1본부장 이수원(사진)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박웅현 제작전문임원(ECD)은 크리에이티브 대표(CCO)로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대표는 1991년 제일기획 AE로 광고계에 입문했다. 2000년 TBWA 코리아 이직 후에는 국내 최고의 파워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SK텔레콤, 대한생명, 우리투자증권 등을 담당했다.

2009년 광고본부장을 맡은 후에는 한국암웨이, 현대카드·캐피탈, 광동제약, AXA다이렉트, 삼성생명, 세스코, 옥션, 웰컴저축은행 등 TBWA코리아의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박 크리에이티브 대표는 SK이노베이션 '혁신을 혁신하다', 대림산업 'e편한세상, 진심이 짓는다', 오리온 닥터유 '영양을 설계하다', SK에너지 '생각이 에너지다' 등의 광고캠페인을 담당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롯데케미칼, 美 LACP 경영보고서 대상

"디자인 창의성 등 활용"롯데케미칼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개최하는 국제적 기업 홍보와 보고자료 평가 대회 '스포트라이트 어워드(Spotlight Awards)'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2001년부터 시작돼 올해 14회차를 맞은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브로슈어, 발간지, 연차 보고서 부문 등에서 16여 개국 300여 기업이 1980여 개의 응모작을 제출했다. 각 부문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을 선정해 시상한 뒤 모든 영역의 작품들은 통합해 'Top 100'을 선정, 별도로 시상했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처음 참여했지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분 대상을 차지했다. 특히 전체 1500여 출품작 중에서 최연상, 전체 서사구조, 디자인, 창의성, 메시지 전달성, 가독성 등 6개 평가부문에서 만점에 가까운 99점을 받아 전체 5등에 올랐다. 또 보고서 구성과 디자인의 참여성을 인정받아 '가장 영감을 주는 브로슈어'라는 특별상도 수상했다.

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생활 속의 롯데케미칼'이라는 책 속의 작품을 통해 친근하게 제품을 소개하고 롯데케미칼의 미래가치 창출 활동과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활동 등을 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심사총괄을 맡은 LACP 크리스틴 케네디 상무이사는 "전체 보고서 구성의 우수함과 가독성과 시각성을 중시한 콘텐츠가 훌륭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홍보 자료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창의적으로 만들고 메시지 전달성을 높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기자 ek@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
2014 SPOTLIGHT AWARDS
GLOBAL COMMUNICATIONS COMPETITION
Lotte Chemical
Platinum Award
The Lotte Chemical Sustainability Report 2013
LACP

롯데케미칼이 수상한 美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 대상 상장.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HongKong

拾荒伯

慈善心腸

今年85歲的……

大街小巷執回收廢物轉賣 一做近30年 彭伯累計捐款已達100多萬元人民幣

不少人指指點點

metro Mexico

Hallan ofrenda del pirámide en Teotih

약 103m 지하 터널 – 거대 유적 발굴

멕시코 고대도시 테오티우아칸의 피라미드 지하에서 103m짜리 동굴이 발견됐다. 국립인류역사연구소(INAH)는 지난달 29일 테오티우아칸의 '엠플루메다 뱀' 사원에서 대규모 지하 동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지하 동굴에서 무려 7만 개의 유물이 발견, 멕시코 고대 문명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될 전망이다. 동굴에는 총 3개의 방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곳에 4개의 돌 조각상이 있는데 모두 정교하게 가공됐다.

metro France

Marseille : un rappeur menace un producteur avec une arme pour enregistrer un disque

"음반 빨리 내달라" 권총 협박

지난달 30일 남프랑스에서 한 래퍼가 음반제작자에게 권총을 사용해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두 남성이 스튜디오에 갇혀있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엔 떨고있는 음반제작자 두 명과 권총을 들고 있는 남성이 있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음반 제작 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조바심이나 권총을 사용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프로듀서와 녹음 날짜를 정확히 하고 싶었다는 주장이다.

metro Russia

Сочинские собаки прижились за ру

"메달보다 더 소중" 소치 올림픽 스타 유기견 입양 감동

8개월 전 러시아 소치 겨울올림픽에 참가한 몇몇 선수들이 경기를 마친 뒤 지역의 유기견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입양된 강아지들의 사진이 최근 사진 공유 사이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돼 화제다.

소치 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슬로프스타일은 메달리스트 거스 켄워시와 미국의 유명 사진작가 로빈 맥도날드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강아지들의 사진을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다.

켄워시의 오랜 친구이자 사진 기자로 소치를 방문했던 맥도날드는 강아지 4마리와 어미 개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평소 동물애호가로 잘 알려져 있던 켄워시 역시 소치 올림픽 미디어센터 근처에서 만난 유기견을 입양했다.

미국 스노보드 국가대표 린지 자코벨리스도 유기견 입양에 동참했다. 그는 "올림픽에서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훨씬 값진 보물을 발견했다"며 "강아지들과 함께 돌아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소치에서 온 강아지들은 원래 키우던 치와와와 함께 산다"며 "매튼 티격태격 하지만 모두 잘 지낸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선수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감동적이다" "유기견 살처분 명령을 내렸던 러시아 당국은 부끄러워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리=조선미기자

30년간 폐지 주운 '기부 천사'

삼륜차 끌고 다니며 쓰레기 수집… 번 돈 항구·학교 건설 위해 내놔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돈은 생활할 만큼만 있으면 된다."

중국에서 은퇴 후 30년간 폐지를 모으며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는 노인 펑관파(85)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다.

후난성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는 9세가 되기도 전부터 석회를 줍고 집꾼일을 해 보리를 삯으로 받으며 살아왔다. 우여곡절 끝에 창더시 리현 허랜포진의 첫 당위원회 서기가 된 그는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많이 만났다. 그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고 시설금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1981년 은퇴를 한 펑관파는 은불닫은 공장에 대량의 철이 넘겨진 것을 보고 쓰레기를 줍기로 결심했다. "자기 집도 가난하면서 부자들이 하는 행동을 한다"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쓰레기를 줍고 다닌다" 등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그는 그냥 웃어넘겼다.

처음 3년간 번 돈은 8만 위안(약 1374만 원). 그는 더 제대로 봉사를 하기 위해 폐품수거 센터를 설립했다. 잘 될 때는 직원이 20명까지 있었다. 그는 항상 삼륜차를 끌고 다니면서 폐품을 수집하고 번 돈은 기부했다. 수력발전소 건설에는 700위안을, 경기장 건설에는 1000위안(약 17만 원)을 주저 없이 내놓았다. 1000위안이면 당시 그의 연소득과도 맞먹는 금액이었다. 이어 다리, 항구 건설, 유치원, 학교, 장애인 독거노인 등 필요한 곳이면 기꺼이 돈을 내놓았다. 그가 지금까지 기부한 돈은 100만 위안(약 1억 7184만 원)이 넘는다.

주변의 반응에 대해 그는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점점 이 일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내와 자식들도 모두 열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3일>

코스피 1952.97 (-11.40) 코스닥 552.47 (-6.23)
금리 2.12 (-0.02) 환율 1073.60 (+6.10)

시중 향수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검출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향수 40개 제품(수입산 20개·국산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0종의 사용 여부를 검사한 결과 15개 제품(수입 6개·국산 9개)에는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아프리카TV 수능 이벤트

SNS플랫폼 아프리카TV는 자사 인기방송 진행자(BJ) 3만명이 수험생 응원 방송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BJ로는 대도서관, 디바제시카, 박현서가 참가한다.

올해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5일까지 홈페이지에 자신의 수능 고민을 남기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4명의 수험생은 BJ의 방문 응원과 합격 기원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차순위 250명은 합격 기원 엿과 쿠키 아이템을 얻는다.

아프리카TV 수능 응원 방송은 아프리카TV PC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장윤희기자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소공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88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삼성그룹 지주사 설립 초읽기?

제일모직·삼성SDS 상장 급물살…전자는 분할 뒤 합병 가능성

제일모직이 다음달 1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이 지주사를 설립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 다른 삼성 계열사인 삼성SDS는 이보다 이른 오는 14일을 상장 예정일로 잡았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SDS가 연말을 맞아 상장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3일 재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SDS의 조기 상장을 위한 사전 작업이 동시에 진행 중인 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생명·삼성화재 지분 취득절차 진행 등에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즉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준비운동'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제일모직은 이재용 부회장이 25.1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각각 8.37%, 이건희 회장이 3.72%를 보유해 오너가 지분이 45.6%에 이른다.

삼성그룹의 구조는 제일모직을 기점으로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카드→제일모직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다.

계열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 삼성전자인 만큼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이 예상된다. 투자부문(홀딩스)과 사업자회사로 나눈 뒤 홀딩스와 제일모직을 합병하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홀딩스 지분은 ○%로 치솟는다.

현재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6%에 그치지만 제일모직 지분으로 홀딩스 지분을 확보할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사를 만들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은 국내 오너가의 관행이나 다름없다"며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인 가운데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바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향후 3~4개월이 이 부회장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호기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건강관리 앱 체험 3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대한민국 과학창의 축전'을 찾은 학생들이 IT를 건강에 접목시킨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과학창의 축전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과학기술 체험행사로 창의, 도전, 융합 3가지 주제에 맞춰 창의존, 도전존, 미래존 등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연합뉴스

경유차 늘면서 혼유 사고 급증

휘발유 넣은 주유소 "나몰라라"… 분쟁 늘어

연비를 이유로 경유(디젤) 차량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혼유 사고 피해 건수는 2012년 131건, 지난해 155건, 올해 1~8월 18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주유 관련 소비자 불만 가운데 혼유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9.3%, 11.9%, 23.3%로 급증했다.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면 운행 중 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엔진 떨림,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주유 후 일정거리를 달린 뒤 차량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에 가서야 혼유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때문에 차량 손상 정도가 큰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유소 측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과실을 인정하고 수리를 하더라도 연료탱크 세척 정도로 끝내려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연맹 측은 전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가 조금만 주의하면 혼유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주유 전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분명히 알리고, 영수증을 보관해 결제 금액과 유종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다주택자는 보유한 집값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자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주택연금 가입은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에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이다. /김연지기자

탈스펙 추세에도 따지는 대학 간판

탈스펙 추세에도 대학 간판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3일 기업 41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기업의 88%가 "신입사원 채용 서류전형에서 학벌을 본다"고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견기업(95.8%), 중소기업(87.3%), 대기업(84%) 순으로 학력을 평가에 많이 반영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8.5%의 기업은 "다른 조건이 부족하지만 학벌이 우수해 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다"고 답해 관심을 모았다.

응답 기업의 61.2%(256개사)는 인사 전형의 학벌 반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로는 '학벌도 노력의 성과의 일환'(46.5%·복수응답)이 꼽혔다. 이어 '객관적 검증 방법 중 하나'(44.5%), '학벌에 따라 역량 수준 차이 존재'(41.8%), '검증된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17.6%) 등이 거론됐다.

반면 구직자의 학벌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업(38.8%·162개사)은 그 이유로 '학벌과 실력은 비례하지 않음'(77.2%)을 1순위로 들었다. 이밖에 '학벌보다 중요한 평가 기준 존재'(36.4%), '선입견으로 인한 공정한 평가 저해'(32.7%), '진정한 인재 선발 기회를 놓칠 수 있음'(28.4%) 등이 학벌 위주 평가의 부정적 이유로 나타났다. /장윤희기자

하나·외환銀 통합작업 탄력 붙나

Issue&View
김종준 하나은행장 퇴임

걸림돌 제거 · 이달 중 금융위에 승인 신청서 제출

/박미영 기자 · ve1793@metroseoul.co.kr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작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조기통합에 결사반대를 외쳐온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양 은행의 합병계약 체결과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사퇴 등이 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역시 이달 중 금융위원회에 통합승인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초 통합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하나은행장은 이날 퇴임식을 갖고 은행장직에서 물러났다. 임기 4개월을 앞두고서다.

김 행장의 퇴임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절차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금융위에 통합승인을 받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통합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신임 행장을 뽑지 않고 선임 부행장인 김병호 부행장이 은행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이는 하나·외환은행 통합 시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통합 행장직에 선임하기 위한 수순으로도 보인다. 물론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업계는 김 외환은행장이 통합은행장직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중론이다.

지난 3월 취임한 김 외환은행장은 임기가 2016년까지 남아 있는데다 32년간 외환은행에서 일한 경력 등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초대 행장에 대해 누가 된다고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일단 노조와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 통합을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상은 아직 남은 숙제다. 사측과의 대화는 천명하지만 조기통합에는 여전히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것.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27일 사측이 조합원 900명에 대한 징계안을 38명 징계로 대폭 축소하자 조기통합 관련 노사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다만 "조기통합 반대와 2·17 합의 준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합의를 뛰어넘는 조건과 요구도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통합쪽으로 대세가 기울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은행권의 수익악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하나금융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 감소한 2944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두 은행 이사회 또한 "잠재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적인 글로벌 금융그룹 도약을 위해 통합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유상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외환은행의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 성장과 이에 대한 전략을 짜는 등 합병사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은 (주)한국외환은행으로 정해졌다. 합병 비율은 하나은행의 보통주 1주당 외환은행의 보통주 2.97주며 합병기일은 내년 2월 1일이다.

동양 CP 불법판매 협조 증권사 징계

금융감독 당국이 부실 기업어음(CP) 판매로 수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그룹 사태에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CP 불법 판매에 협조한 증권사 3곳에 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영증권과 SK증권, 솔로몬투자증권에 대해 동양 계열사로부터 인수한 CP 물량을 동양증권으로 바로 넘겨 판매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경징계(기관주의나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CP의 주관사였다.

증권사가 계열회사의 증권을 자전 인수할 경우 3개월 이내 이를 고객의 신탁재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관련 법률은 인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증권을 넘겨받아 즉시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동양증권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CP 물량을 바로 넘기도록 하고 이들 증권사를 형식적인 중개 증권사로 내세웠다.

이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중개에 나선 기간 등이 다르므로 제재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해외직구 전용 쇼핑몰' 오픈 KB국민카드는 3일 해외직구족을 위해 배송과 구매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을 열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쇼핑몰'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해외 쇼핑몰로 연결되는 몰인몰(Mall-in-Mall) 형태다. 현재 이베이(ebay), 갭(GAP), 랄프로렌(Ralph Lauren), 드럭스토어(Drugstore), 샵밥(Shopbop) 등 180여 개의 유명 해외 쇼핑몰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 쇼핑몰을 통하면 최대 7%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 제공

생보사 영업채널 다각화로 위기 돌파

온라인·TM·GA 등 생존 전략 다변화 시도

생명보험사가 영업채널 다각화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올 초 정보유출에 따른 전화 모집인(TM) 영업 중지를 비롯해 최근에는 정부당국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홈쇼핑 등의 규제에 나서면서 영업이 어려워지자 경영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문국 ING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달 27일 창립 27주년 기념 타운홀 미팅에서 앞으로 방카슈랑스와 GA 채널 역량 구축 등 채널 다변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ING생명은 기존에 설계사를 통한 영업이 대부분이었지만 올해 500명가량의 전속 보험설계사(FC)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라이나생명은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 주력 채널인 TM외에도 홈쇼핑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라이나생명에서 TM은 지난해 4~12월 276억7700만원의 초회보험료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8월 기준)는 218억7200만원으로 전체 비중이 73%로 하락했다. 이는 올 초 1, 2월 금융사 정보유출에 따른 금융당국의 TM영업금지로 매출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GA로의 채널 다각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NH농협생명의 경우 2년 전 전무하던 GA채널을 강화해 현재 100개 이상의 대리점과 협업하고 있다.

이 기간 농협생명의 GA 판매 수수료는 지난 2012년 49억원에서 올 8월 1022억원으로 급증했다.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10월 자사형 GA '라이나금융서비스'를 출범시켰다. 미래에셋도 지난 4월부터 '미래에셋금융서비스'를 설립 영업을 해오고 있다.

온라인 채널 비중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내 첫 온라인 생보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영업을 시작한데 이어 현재 삼성·한화·KDB생명 등에서 온라인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지속과 금융당국의 잇단 규제로 앞으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GA와 홈쇼핑 등을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온라인까지 다양한 채널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이기자

日 추가 양적완화…수출주 출렁

GPIF 벤치마크 변경은 신흥국 증시 '호재'

일본이 미국 양적완화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국내 증시에 엔저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일본 업체들과 수출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와 화학주가 특히 큰 충격을 받았다.

다만 일본 국민연금격인 공적연금펀드(GPIF)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 발표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나란히 6% 안팎의 급락을 나타냈다. LG화학, SKC 역시 6%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실적 부진으로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 반등할 조짐을 보이던 국내 자동차·화학 업종에 엔저 우려가 찬물을 끼얹었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주말(31일)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 규모를 현행 연 60조~70조엔에서 10조~20조엔 늘린 연 80조엔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또 BOJ가 보유한 국채 잔존만기를 7~10년으로 확대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펀드(J-REITs)의 연간 매입액도 각각 3조엔, 900억엔으로 3배씩 늘리기로 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보다 추가 양적완화 시기를 앞당긴 깜짝 시행이었다.

BOJ의 조치에 글로벌 증시는 화답했다. 일본 증시가 4.8% 급등했고 미국 뉴욕증시에서 간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나란히 1% 넘게 올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국내 증시는 하락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세를 보이며 장중 1950선 밑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한편 일본의 조치 가운데 신흥국 증시에 호재가 될 만한 내용도 나왔다.

일본 정부는 추가 양적완화 발표와 함께 GPIF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국내채권 비중을 현행 60%에서 35%로 낮추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비중은 기존 12%에서 2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GPIF의 벤치마크를 종전 MSCI 선진국지수 'Japan'에서 MSCI 전세계(AC World)지수-ex Japan'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GPIF의 투자자금이 신흥국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현정기자 hjk m@metroseoul.co.kr

롯데손보, 여성 전용 건강보험 출시

롯데손해보험은 3일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여성건강종합보험 '(무)롯데 Only 여성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 이 보험은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남편)의 소득상실 시 구직급여위로금(1일이상 90일한도), 구직급여지원금, 장기구직급여지원금(31일/61일이상) 특약을 통해 구직활동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지급해 가족의 소득상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80%이상 후유장해 시 10년간 매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보험료보장 특약을 통해 사고 시 기 납입한 보험료를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향후 납입할 보험료(조회보험료 기준)를 지급한다.

또 손보업계 최초로 응급실 내원비 특약을 통해 진료비를 보장한다.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6대 가전제품의 고장 수리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녀 출산을 기념해 출산축하금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유방암수술비, 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 강력범죄 특약 등을 비롯해 법률비용손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과 같은 다양한 생활위험과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 등 일상 생활 중 위험도 보장한다.

100세만기 상품인 이 상품의 납입기간은 고객위험에 따라 10년·15년·20년·25년·30년중 선택 가능하고, 계약 1년 이후부터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김승녀기자

중국본토채권 공모형 펀드 판매 유안타증권은 중국본토 우량채권에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동양차이나본토채권증권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를 오는 5일부터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중국본토채권에 투자하는 홍콩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한다. /유안타증권 제공

"한푼이라도 더"…특판에 자금 몰려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시중 자금들이 예·적금 특판 상품에 몰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계열저축은행 통합을 기념해 전체 적금상품의 기본금리를 4.2%에서 4.6%로 0.4%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특판을 1000억원 한도로 실시한다. 이번 특판은 특정상품이 아닌 SBI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적금 모든 상품에 일괄 적용된다. 판매 중인 각 적금상품에 1인 1계좌씩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적금 기본금리에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5인 이상 영업점 방문 때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는 '다함께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고객은 1년 기준 최고 5.0%의 금리로 가입할 수 있다. 방카슈랑스 가입이 조건인 'PB우대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고객은 최고 5.6%의 금리로 가입이 가능하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인상된 기본금리인 4.6%에 상품별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 받으면 초저금리 시대에 적금으로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아주저축은행은 창립 44주년을 기념해 정기예금을 특별 판매한다. 이번 특판 정기예금은 12개월 이상 예치 시 연 2.8%, 16개월 이상 예치 시 연 2.89%의 금리를 준다. 300억원 한도 소진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판과 함께 장기 목돈 마련을 준비 중인 직장인 고객을 위해 인터넷뱅킹 정기적금 금리도 최대 4.2%(36개월)까지 제공한다.

이밖에 출시한지 단 며칠 만에 한도가 소진돼 판매가 종료되는 상품도 있다. KB국민은행의 '박인비 커리어 그랜드슬램기원예금'은 1인당 가입금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판매 시작 5일 만에 2000억원의 한도가 전액 소진된 바 있다. /김보배기자 mine@

삼성·LG전자, 서로 다른 TV 전략 선택

LCD에 집중하는 삼성, OLED 주력하는 LG

글로벌 TV 시장의 차세대 제품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로 다른 전략으로 승부수를 걸었다.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LCD(액정표시장치) TV의 기술력을 더 키우는 반면 LG전자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와 함께 퀀텀닷(양자점) TV에도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OLED 등 LCD의 뒤를 이을 디스플레이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LCD로 소비자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며 LCD TV의 기술력을 높이는 쪽을 택했다. LCD TV는 현재 전 세계 TV 시장을 이끌고 있는 제품으로 지난해 2억780만대에 이어 올해 약 5% 성장한 2억171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커브드 UHD TV에 이어 곡면과 평면 전환이 가능한 벤더블 UHD TV를 선보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진화한 LCD 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9월 IFA에서 선보인 105인치 벤더블 UHD TV(왼쪽)와 LG전자의 OLED TV가 출시 한 달 만에 국내 시장에서 1000대 판매를 돌파했다. /삼성전자·LG전자 제공

OLED TV에 대해서는 패널 수급 문제, 비싼 가격 등을 이유로 아직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퀀텀닷 TV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퀀텀닷은 UHD TV보다 색 재현율이 뛰어난 데다가 LCD 패널 제조 과정에서 퀀텀닷 소재를 얇은 필름 한 장만 덧붙이면 되기 때문에 OLED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LG전자는 OLED TV의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OLED TV는 백라이트 없어도 자체 발광하는 소자를 활용한 OLED 패널을 사용해 LCD에 비해 얇으면서도 뛰어난 화질과 완벽한 곡면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최근 LG전자가 중국기업을 중심으로 OLED 패널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도 착해졌다.

LG전자는 1000만원을 호가하던 OLED TV가 패널 수율 향상으로 00만원대로 가격이 크게 떨어져 판매량도 20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출시한 곡면 OLED TV는 한 달 만에 국내시장 판매량 1000대를 넘어서는 등 소비자들의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퀀텀닷 TV를 OLED와 함께 병행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지난 29일 3분기 실적발표회에서 LG전자는 "OLED는 UHD TV와는 차원이 다른 차세대 디바이스라고 생각한다"며 "퀀텀닷을 OLED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퀀텀닷 TV는 그냥 LCD의 일종이고 단지 화질을 개선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시장 상황에 대비해 경쟁사들과의 퀀텀닷 TV 경쟁에서도 충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혜민기자 hjung0404@metroseoul.co.kr

네트워크 카메라 '가족 지킴이'로

기능성 강조한 소형 네트워크 제품까지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늘면서 가정용 네트워크 카메라가 가족 돌봄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지킴이'로 진화하고 있다.

세로벅은 HD급 고해상도 유무선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 'IPCAM-100', 'IPCAM-300' 2종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외부에서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원격 제어에 집안 구석구석까지 실시간 고화질 모니터링이 가능한 유무선 네트워크 감시카메라다.

전문지식 없는 초보자도 제품 하단에 부착된 QR코드만 스캔하면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다. 전용 앱(안드로이드, iOS 전용앱 무료 제공)은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실시간 영상 시청과 제어가 가능하다.

브이스타캠 코리아의 위드엔을은 3분만에 설치가 가능한 가정용 CCTV VSTARCAM 100S HD급 IP카메라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인터넷 연결 후 카메라의 아이디·암호 입력만으로 설치가 완료되는 Plug&Play 기술과 인터넷이 연결된 장소라면 어디라도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국내환경에 최적화된 한글 소프트웨어(SW) 제공으로 설치·사용이 용이하다. HD급 100만화소로, 기존 30만~50만화소급의 제품에 비해 얼굴과 차량의 번호판 식별에 유리하다.

CCTV 제조 전문업체 넷큐리테크솔루션즈는 'HD720P NT1 300MiNi'를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IP카메라로 가정용 CCTV 설치를 원하는 이들을 겨냥해 제작됐다. 카메라 내부에 SD메모리 장착으로 최대 20여일간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상하좌우 350도 회전으로 집안 내부의 사각지대 관찰은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느 곳에서든 집안 내부 영상을 확인·조절할 수 있다.

엑시스커뮤니케이션즈는 기능성을 강조한 소형 네트워크 카메라 AXIS M1004-W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1메가픽셀이나 HDTV 720p 해상도로 초당 30프레임의 뛰어난 영상을 제공해 동급 최고의 품질과 전문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한다. 가정 내 벽이나 천장, 선반 등에 쉽게 설치 할 수 있다. 무선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하는 고객이 선호하고 있다. /정성훈기자 ysw@

삼성전자 갤럭시 탭S 광대역 LTE-A 출시 삼성전자가 광대역 롱텀에볼루션어드밴스트(LTE-A)를 지원하는 태블릿PC 갤럭시탭S 광대역 LTE-A 10.5인치 제품을 3일 출시했다. 출고가는 70만 9700원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삼성전자 제공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없다

시장보다 중대형슈퍼 수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수혜자는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점포가 아닌 중대형슈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 등 지역소상공인 보호의 정책적 효과는 적은 반면 장바구니 소비를 감소시켜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연간 평균 1회도 미치지 못하는 0.92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도 증가하지 않았음이 64.3%로 가장 많았고 ▲1~2회 증가(23.1%) ▲3~4회 증가(8.8%) ▲5~6회 증가(2.3%)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휴무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는 카드결제의 어려움이 55.2%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시설 없음(43.9%) ▲교환 및 환불 어려움(37.1%) 등을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쇼핑 대체 방안으로 동네 중대형슈퍼마켓과 다른날 대형마트 이용이 각각 38.0%, 24.0%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당초 보호대상이었던 동네 소규모점포나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 응답은 각각 11.1% 및 9.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박상훈기자 pbh@

"성장성 기준 대출 시급"

경제계가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조달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공급 확대에도 기업의 자금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형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2004년 243.7조원에서 2013년 489조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GDP 대비 중소기업 자금대출 비중도 33.5%로 OECD 26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중소기업 자금사정지수는 2010년 88.9에서 2013년 80.1로 최근 4년간 하락하고 있다. /박상훈기자

'돌풍' 예고 토요타 신형 캠리, 경쟁상대는?

쏘나타·K5·말리부 등 국산차도 긴장감 가격 크게 낮출 경우 시장 흔들 가능성

한국토요타가 이달 18일 신형 캠리(사진)를 공개하고 본격 출시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국내 중형차 시장이 다시 한 번 뜨거운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토요타는 신형 캠리를 내세우며 기존 가격보다 인하해 더욱 공격적으로 시장 공략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기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경쟁력 있는 가격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캠리는 XLE 3350만원, 하이브리드 XLE 4230만원, V6 3.5 4270만원으로 판매해왔다.

토요타가 신형 캠리의 가격을 낮출 경우 수입차뿐 아니라 국산 중형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대 쏘나타와 기아 K5, 쉐보레 말리부, 르노삼성 SM5가 여기에 해당한다. 수입차로는 닛산 알티마, 혼다 어코드, 포드 퓨전 등이 경쟁자다.

경쟁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 쏘나타 2.4는 193마력이고 기본 가격은 2395만~2990만원, 풀 옵션 모델은 3411만원이다. 쉐보레 말리부 2.4는 최고출력 170마력이고 가격은 3144만원이다. 내비게이션과 선루프를 포함한 모델은 3317만원이다.

기아 K5는 캠리와 달리 2.5ℓ급 모델이 없고 2.0 가솔린과 2.0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로 구성돼 있다. 2.0 가솔린이 172마력, 2.0 가솔린 터보는 271마력이어서 차종의 특성에 맞게 캠리와 맞서고 있다. 가격은 2.0 터보가 2305만~3020만원이고 내비게이션과 파노라마 선루프를 포함한 풀 옵션 모델은 3402만원이다.

르노삼성 SM5는 K5와 상황이 조금 다르다. 2.5 모델이 있었으나 현재는 단종되고 1.6 터보와 1.5 디젤이 추가된 상태. 2.0 가솔린(141마력)은 캠리 2.5(181마력)보다 출력이 떨어지고, 1.6 터보는 190마력으로 파워가 낮지만 캠리 2.5와 큰 차이가 없다. 1.6 터보의 가격은 2730만~2800만원이다.

수입 경쟁자인 닛산 알티마는 3350만~3750만원이고, 혼다 어코드는 3250만~4150만원, 포드 퓨전은 3695만~3995만원이다.

이렇듯 캠리와 경쟁자들은 3000만~4000만원 가격대에 몰려 있다. 따라서 신형 캠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경우 강력한 무기를 더하는 셈이어서 경쟁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신형 캠리는 지난달 20일부터 사전계약을 받고 있으며 현재 순조로운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혁기자 ferrari@metroseoul.co.kr

KT 올레 LTE 데이터 쿠폰 쓰세요 KT는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를 추가로 구매하고 지인에게도 선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올레 LTE 데이터쿠폰' 5종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쿠폰은 데이터 용량에 따라 100MB, 500MB, 1GB, 2GB, 5GB 등 5종류가 있다. 올레샵 내 기프티쇼 페이지(gift.olleh.com)와 기프티쇼 홈페이지(www.giftishow.com), 기프티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판매한다. /KT 제공

월요일 출근시간 서울 도로 '답답'

금요일 '북적' 일요일 '한산'

평일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날은 금요일, 가장 적은 날은 일요일였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3일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상습 정체구역으로 분류되는 양화대교, 예술의전당 등 100개 지점(양방향)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하루 교통량이 금(731만9000대), 목(713만5000대), 토(705만9000대), 화(704만9000대), 수(704만9000대), 월(681만7000대), 일(601만900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요일은 평일 중 하루 교통량이 681만7000대로 가장 적었지만 출근시간대(오전 5~8시)에는 88만7000대로 가장 많았다. 특히 월요일 오전 6~7시 교통량은 29만4000대로, 다른 평일 평균보다 8.4% 높은 수치를 보였다.

퇴근시간대(오후 6~9시) 하루 교통량은 금(113만9000대), 목(109만3000대), 수(107만9000대), 화(107만2000대), 월(105만6000대) 순이었다.

평일 시간대별 교통량은 오전 8~9시(일평균 43만7000대)가 가장 높았고 오전 7~8시(일평균 40만5000대), 오전 9~10시(40만2000대), 오후 6~7시(39만5000대)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준기자 mikuni@

일본 국민게임 '몬스터 스트라이크' 상륙

알까기 방식 높은 몰입감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게임'이란 독특한 발상으로 일본에서만 1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수탕 RPG '몬스터 스트라이크'가 국내에 상륙한다.

일본 콘텐츠 개발사 믹시는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몬스터 스트라이크' 사전 등록(monster-strike.co.kr)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연내 중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를 통해 정식 출시된다고 덧붙였다.

몬스터 스트라이크는 다양한 능력을 보유한 몬스터를 이용해 적을 물리치는 액션 게임이다. 화면을 당기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플레이가 가능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특히 한 명의 스테이터로 최대 4명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멀티 플레이를 지원해 강력한 커뮤니티성을 자랑한다. 지인들과 함께 즐기는 플레이는 높은 몰입도와 함께 쫄깃 긴장감을 선사한다.

이같은 장점 덕분에 지난해 10월 일본 출시 이후 1년 만에 1500만 다운로드로 모바일 게임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던 '퍼즐앤드래곤'을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이다.

키무라 코키 총괄 프로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즐기는 몬스터스트라이크는 일본 젊은이들의 생활패턴을 바꿔놓을 정도로 큰 히트를 쳤다"며 "일본과 문화가 비슷한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음성을 한국 성우의 음성을 대체하는 등 몬스터스트라이크의 현지화에 힘쓰고 있다"며 "몬스터스트라이크가 한국에서 성공할 경우 지사 설립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원기자 kmlee@

웹드라마 '연애세포' 보세요

네이버TV캐스트, 서비스

네이버 TV캐스트가 동명의 네이버 웹툰 원작 웹드라마 '연애세포'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이버는 웹드라마 연애세포의 첫방송과 함께 OST를 3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총 15편으로 구성됐으며 매일 1회씩 서비스된다. 웹드라마 최초로 미국 드라마피버 사이트에도 동시 방송된다.

연애세포는 연애세포 고양이 네비가 모태솔로남 마대훈과 톱스타 서린의 사랑을 위해 연애 속성 과외를 펼치는 로맨틱 코미디다. 아역배우 출신 김유정 박선호 남지현 백성현이 주연으로 나오며 김우빈 장혁 박준형 버지원 등의 유명 배우가 특별 출연한다.

장준기 네이버 동영상 셀장은 "이동 시간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웹드라마를 시청하려는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앞으로도 다양한 웹드라마를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illegible]기자 unique@

청약률이 높아야 계약률도 높다?…"옛말"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따로 움직여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부 인기 단지를 제외한 신규 분양아파트의 평균 청약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참여가 늘면서 청약률과 별개로 계약률은 높게 나타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약률과 계약률이 비례했던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분양된 서울 강북권 재개발 아파트의 계약이 순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는 평균 청약률이 2대 1을 넘지 않았음에도 계약률은 80~9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화건설이 지난 3월 말 성북구 정릉동에서 선보인 '정릉 꿈에그린'은 계약 돌입 약 2개월 만에 90%를 판매했다. 3순위까지 평균 1.7대 1이라는 높지 않은 청약률이었지만 짧은 시간 내 완판을 앞두게 됐다.

롯데건설이 강북구 미아4구역에서 공급한 '꿈의숲 롯데캐슬' 역시 청약률이 1.97대 1에 그쳤지만 일주일 만에 85%의 계약률을 보였다. GS건설이 성북구 보문3구역에서 분양한 '보문파크자이'도 청약률은 1.6대 1에 불과했지만 현재 저층을 제외하고는 완판을 앞둔 상태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단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1순위에서 모집가구수의 3배수가 넘는 청약자가 몰려야 안정적인 계약이 가능하다"며 "3순위까지 청약률이 2대 1을 넘지 않는데도 계약률이 높은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동안에도 분양시장에는 가수요가 몰리면서 청약률이 높은

보문파크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데 계약률은 낮은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청약률이 낮은데 계약률은 높은 반대의 경우는 흔치 않은 현상으로 청약자 대부분이 이탈하지 않고 계약까지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건영 꿈의숲 롯데캐슬 분양소장은 "강북구에 5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라 대기수요가 많았고, 청약에 참여했던 고객들의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3순위에서도 대거 미달을 기록한 GS건설의 김포 '한강센트럴자이'는 최근 들어 계약률을 7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미 72㎡와 102㎡는 모두 팔렸고, 분양가구수가 가장 많은 85㎡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 앞서 4월 포스코건설이 구리 갈매지구에 공급해 1.15대 1의 낮은 청약률로 애를 먹은 '갈매 더샵 나인힐스'도 3개월 만에 계약률 60%를 넘긴데 이어 최근 남은 물량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관계자는 "청약률은 낮았지만 현재는 내년 상반기 2차 분양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계약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한강센트럴자이 완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그동안 공급이 줌했던 서울 강북권이나 분양가가 저렴한 경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청약률과 계약률이 따로 움직이곤 하는데 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재편되면서 나타난 비탄력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서상혁기자 mook@metroseoul.co.kr

현대건설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원봉사센터 준공 현대건설이 지동복사자 한성과 자연보호활동 및 교육을 위한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원봉사센터 1호점을 완공, 준공식을 진행했다. /현대건설 제공

11월 입주물량 5천여 가구 증가

수도권 11월 입주물량이 10월에 비해 5000여 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 입주물량은 총 38곳 1만9543가구다. 10월 입주물량인 1만6057가구와 비교해 3486가구가 늘었고, 지난해 11월 1만8728가구에 비해서는 815가구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총 12곳 787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 3곳 1172가구, 경기 6곳 4503가구, 인천 3곳 2199가구다. 10월 2676가구에 비해서는 5198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서초 롯데캐슬프레지던트'가 오는 20일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49㎡ 총 280가구로 구성돼 있다.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서는 '평택소사벌 B-3블록'이 지난 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전용면적 74~84㎡ 총 851가구로 구성돼 있다.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서는 '운정신도시롯데캐슬'이 오는 29일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26㎡ 총 1880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방은 총 26곳 1만166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부산이 7곳 3520가구로 입주물량이 가장 많다. 세종 6곳 2593가구, 울산 4곳 1486가구, 경남 1곳 1210가구, 전북 3곳 1208가구, 전남 1곳 672가구, 강원 1곳 424가구, 광주 2곳 396가구, 제주 1곳 160가구 등 순이다. 지난 10월 1만3381가구에 비해서는 1712가구 줄어든 물량이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는 '광안에가디오션'이 오는 28일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61㎡ 총 928가구로 구성돼 있다. 울산 중구 우정동에서는 '우정혁신도시포반베르디움'이 오는 5일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97㎡ 총 346가구로 구성돼 있다. /김두탁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절반 내린다

정부 개정안 확정

이르면 내년 초부터 매매가 6억~9억원, 전세가 3억~6억원 주택을 각각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현재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면서 종전보다 보수 요율을 낮춘 것이다.

6억~9억원의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보수 요율체계는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이면 요율은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전·월세는 최고가인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금은 3억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경우 최고요율인 0.8%가 적용돼 중개보수를 240만원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끼리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0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매매 때 9억원 이상, 임차 때 6억원 이상인 주택에는 지금과 똑같은 최고요율(매매 0.9%, 임차 0.8% 이하에서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가격 구간대를 신설하면서 요율을 낮추면 3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보다 1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또 주거용으로 쓰이는 일이 더 많아진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와 관련해 주거용 설비(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는 무조건 주거용으로 보고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0.9% 이하에서 협의'의 요율을 물어야 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는 시·도에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개정된 요율체계가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석기자 kimd@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

주택

매매·교환

구간	현행	개선안
5천만원 미만	0.6% 이하 (한도액 25만원)	현행유지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이하 (한도액 80만원)	현행유지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이하	현행유지
6억원 이상	0.9% 이하에서 협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이하(신설)
9억원 이상		0.9% 이하에서 협의

임대차 등

구간	현행	개선안
5천만원 미만	0.5% 이하 (한도액 20만원)	현행유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이하 (한도액 30만원)	현행유지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이하	현행유지
3억원 이상	0.8% 이하에서 협의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이하(신설)
6억원 이상		0.8% 이하에서 협의

주거용 오피스텔

구분	현행	개선안
매매·교환	0.9% 이하에서 협의	0.5% 이하
임대차 등	0.9% 이하에서 협의	0.4%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로서 [illegible]

자료/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식음료업계, 재미+경품으로 고객잡기 심혈

온라인 고객 타깃 '게임 활용 마케팅' 봇물

식음료업계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족을 겨냥해 다양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게임이나 쇼핑·소셜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

소비자들은 간단한 게임 등을 통해 재미도 느끼면서 경품이나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업계들은 큰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자사 제품에 대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먼저 오뚜기는 지난달 조 메이저리거 류현진의 진라면 체인지업 광고 방송의 개념에 관련 이벤트를 오는 23일까지 벌인다. 진라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화면 속 양쪽 진열대에 나타난 진라면을 15초 동안 카트에 빨리 담는 방식으로 매주 최다 참여자 10명에게 진라면 1박스(40개입), 랭킹 100위까지 진라면 5개 들이 세트 교환권을 증정한다.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는 오는 9일까지 2014 겨울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신메뉴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는 '노홍철과 가위·바위·보' 이벤트를 벌인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겨울 신메뉴 홍보모델 노홍철을 상대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간단한 이벤트로 노홍철을 이긴 모든 고객에게 겨울 신메뉴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모바일 쿠폰은 치즈케이크초코스모어·초코악마브라우니·트리플치즈퐁듀 등 총 6종의 겐 디저트 메뉴 중 1가지가 랜덤으로 발송된다. 하루에 한 번씩 참여 가능하고, 게임 시작과 함께 초코와 치즈에 대한 짤막한 상식을 제공해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전달한다.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증정하는 업체도 있다.

현대약품은 비타민 음료 '프림' 과 엑토즈소프트의 모바일 게임인 '밀리언아서'의 제휴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열고 있다.

프림블의 라벨 뒷면에 표기된 쿠폰 번호를 밀리언아서 게임 내 쿠폰 등록을 통해 입력하면 '프림블렘 EXID 카드 5종' 등 다양한 게임 아이템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이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게임 아이템 증정 외에도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에어·문화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이 추가로 제공된다.

제품을 리뉴얼 하면서 향후 모바일 게임을 염두에 둔 회사도 있다.

닭고기 전문 기업 하림은 14년 만에 '용가리 치킨'의 캐릭터와 포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용가리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콘텐츠 창출을 위해 주인공 용가리의 친구 캐릭터 2점도 추가 제작했다. 회사 측은 앞으로 새로운 캐릭터로 인형·완구용품·장난감·이모티콘 등에도 활용하고 스마트폰 게임의 애니메이션 진출까지 고려해 3D 이미지를 함께 제작했다고 밝혔다.

/정해원기자 nmc@metroseoul.co.kr

편의점 '빼빼로데이' 앞두고 분주

평일 직장인 공략 … 실속형 상품 구색 확대

편의점 업계가 대목으로 여기는 빼빼로 데이를 맞아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

세븐일레븐은 저가 상품 매출이 늘면서 올해 5000원 이하 상품 구색을 지난해 보다 10% 가량 확대했다. 실제로 세븐일레븐에서 5000원 이하 상품 구성비는 지난해 58.0%로 전년 대비 14.2% 포인트 증가했다.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패키지 상품 '디즈니 Assort 8입', '디즈니 12+1'은 저렴한 선물용으로 다량 구매 특성을 보이는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이외 함께 차별화된 가맹점 행사 지원을 위해 '빼빼로 조끼(사진)'를 특별 제작해 일선 점포에 배포했다.

CU도 실속형 상품을 강화했다. '빛결타워 안에 초코 빼빼로가 들어 있는 '빌리버 빼빼로'를 4일 출시한다. 이 외에 롯데 빼빼로 패키지 6종과 해태 포키 2종 등 CU 단독 패키지 상품도 구성했다.

GS25는 연인이나 친구에게 특별한 선물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라인 프렌즈 캐릭터 인형을 준비했다. 11일까지 라인 기프트샵과 친구 맺기를 하면 GS25에서 교환 가능한 빼빼로와 포키 기프트 쿠폰을 선물 받을 수 있다.

미니스톱은 DIY 상품을 준비했다. 별도의 포장 재료를 구매하지 않고도 원하는 제체로 상품으로 구성해 구매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1158

뉴스&뉴스

'미원', 58년 만에 제품명·포장 바꿔

● 지난 1956년 국내 최초 조미료로 첫 선을 보이며 대명사격으로 사용되어 온 '미원'이 출시 58년 만에 이름과 제품명을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새로운 단장을 알렸다.

먼저 제품명을 기존의 '감칠맛 미원'에서 '발효 미원'으로 바꿨다. 포장도 주원료인 사탕수수 이미지를 삽입해 제품 원료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제품 용량도 50g 소포장과 함께 100g·200g의 세 가지 용량으로 다양화 했다. 성분도 L-글루탐산 나트륨에 배합하는 핵산의 비율을 조절해 보다 부드럽고 깔끔한 감칠맛을 완성했다.

'디럭스 슈림프 버거' 열흘만에 1백만개 판매

● 맥도날드는 지난달 22일 출시한 한정판 '디럭스 슈림프 버거'가 출시 열흘 만에 판매 100만 개를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페이스북에서 감사 이벤트를 벌이고 참여자 중 10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맥도날드 디럭스 슈림프 버거의 가격은 단품은 3900원, 후렌치 후라이와 음료가 포함된 세트 메뉴의 가격은 5500원이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동안에는 맥런치 세트 가격인 4500원에 판매된다.

11번가, 11월 한달간 10억 상당 경품 행사

● SK플래닛 11번가는 '11번가의 달(11월)'을 맞아 큐레이션 쇼핑 '쇼킹딜 십일시'를 알리고 연중 최대 규모인 총 10억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모바일 앱에서 '십일시'라고 많이 외친 1등부터 1100등에게 최대 11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농구장·영화관·서울 강남역 명동 등에서 고객 참여형 '데시벨 대결' 프로모션도 실시한다.

산들건강, 건강기능식 할인 판매 나서

● 산들건강(www.sandle.co.kr)이 가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연다.

먼저 회사는 '홍도라지 통배고(병)'를 30% 할인 판매한다. 제품은 방부제나 설탕 등의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배와 도라지, 은행 등의 원료를 이용해 각종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특히 제품은 4~6년근 도라지를 이용했으며 용기를 단지에서 병으로 바꿔 가격 부담을 줄였다.

또 회사는 산들통배고 단지 5개 이상을 주문할 경우에도 30% 할인된 가격을 제공한다. 개별 배송이 가능하다.

문의 본사 (02)776-4568, 강남점 (02)555-7767, 강북점 (070)4265-5000

'단풍여행·캠핑을 가볍게!'

강강술래, 아웃도어 간편먹거리 파격 할인

절정을 맞은 가을 단풍과 억새를 찾아 산행이나 캠핑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런 야외활동에서 먹거리는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된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웃도어 활동에 잘 어울리는 간편 먹거리 할인행사를 벌인다.

오는 14일까지 삼계·홍대·시흥 농남농원점에서 소고기 구이류를 주문하면 한우불고기를, 돼지고기 구이류를 주문하면 5돼지양념구이 포장상품을 각각 주문한 만큼 무료로 증정한다. 신림점은 소고기 구이메뉴 주문 시 한우불고기를 준다(해피아워 점심류 제외). 신림 시흥점 수 증예만 진행).

같은 기간 전 매장에서는 육류와 잘 어울리는 산타리타 히어로 카버네쇼비뇽 와인 1병을 주문하면 결제 시 산타리타 히어로 별도 와인 1병을 선물로 증정한다.

쇼핑몰(sulla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캠핑이나 나들이에 잘 어울리는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정찬한우떡갈비(360gx3팩·4만2000원)와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2만5800원)를 30% 할인 판매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면도기 업체 도루코리아의 탁월한 절곡날 기술을 적용한 7중날을 탑재한 '페이스 세븐(PACE 7)'을 증정한다.

가드바에는 41개의 벌집형 모양 홈(hole)이 있어 면도 때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세척도 편리하다. 윤활밴드에는 천연 아르긴 오일과 금잔화 추출물이 함유돼 있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해원기자 prms@

눈가 주름잡는 아이세럼 '주목'

뷰티업계, 건조한 겨울 맞아 출시 잇따라

본격적인 추위로 피부 건조 주의보가 내리지면서 보습 제품 가운데 눈가를 관리하는 화장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눈가는 피지 팜이 분비되지 않아 매우 건조한데다가 하루 1만 번 이상 움직임으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화장품 업체들도 눈가 잔주름·다크서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성 아이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촉촉함을 강조한 세럼 형태가 주를 이룬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케이트 서머빌은 안티에이징 아이세럼 '케이트수티컬 아이 세럼'을 출시했다.

재점·다크서클·주름 등 복합적인 노화증상을 한 번에 관리해주는 고농축 세럼으로 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증 받았다. 수분 보유력이 탁월한 히알루론산 콤플렉스·세라마이드 성분이 미주름을 옅어 보이게 만들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블랙베리 추출물이 눈가에 탄력을 더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셀로 소피의 '타임 인 어 보틀 포 아이즈 데일리 에이지 디파잉 아이세럼'은 특허 성분 '언타욕시단트 리페어' 복합체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노화를 막는다. 제품에 함유된 카르노신 성분이 영양을 공급해 주름을 완화하고 은행잎 추출물은 다크서클을 감소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카렌은 '수퍼 스마트 아이세럼'을 내놨다. 눈가 주름뿐 아니라 처지는 눈꺼풀, 힘없는 눈꼬리, 거칠어진 눈 밑 피부까지 360도 눈가 케어를 통해 탱탱한 동안 눈매로 가꿔준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비지현기자

겨울 패션 '발끝'에 포인트

똑같은 룩에 개성 표출… 컬러·패턴 신상 슈즈 눈길

날씨가 추워지면 블랙·그레이 등 어두운 색 옷에 손이 간다. 칙칙한 겨울 패션에는 '발끝'에 포인트를 줘야 한다. 패션 브랜드 관계자는 "요즘처럼 야상 트렌치코트와 같이 똑같은 스타일이 주를 이루는 계절에는 톡톡 튀는 신발로 개성을 드러내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아메리칸 캐주얼 슈즈 브랜드 캐터필라가 선보인 콜로라도 워커는 투박하면서도 견고한 느낌으로 오랜 시간 신어도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따뜻한 분위기의 레트로 컬러로 빈티지함을 강조해 무채색 패션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지면서 기존 스테디셀러인 골든 옐로 컬러와 함께 생동감 있는 오렌지 컬러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캐터필라 측은 전했다.

화려한 카무플라주 패턴도 인기다. 컷플라의 하이탑 슈즈 '필라이탐'은 카무플라주 패턴이 멋스럽게 들어가 있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4cm 히든 굽으로 키가 커보이는 효과가 있어 슬림한 스키니 팬츠나 레깅스에 매치하기 쉽다. "굽이 있는 데 반해 착화감이 편안해 패션피플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팝 아티스트의 감성을 담은 신발도 눈길을 끈다.

쎄르쉐와 팝아티스트 '찰스장'이 손잡고 선보인 슬립온·스니커즈는 톡톡 튀는 하트 무늬가 돋보인다.

찰스장은 쎄르쉐와 협업을 통해 자신을 의인화한 작품인 '해피 하트' 시리즈 패턴을 입혀 감성적인 캐주얼 이미지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비 해피' 슬립온은 신고 벗기기 간편하고 화이트 쉬커창을 사용해 트렌디함과 캐주얼이 돋보인다. '해피' 스니커즈는 심플한 라인에 찰스장의 팝아트 디자인을 더해 소녀 감성이 물씬 풍긴다.

/박지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탕웨이 '샴푸의 요정' … 팬틴 뮤즈 발탁 '만추여신' 탕웨이가 샴푸의 요정이 됐다. 프리미엄 헤어케어 브랜드 팬틴은 배우 탕웨이를 새롭게 리뉴얼된 프리미엄 라인의 뮤즈로 발탁했다고 3일 밝혔다. 우아하면서도 건강한 매력을 지닌 탕웨이가 브랜드가 추구하는 건강한 아름다움과 잘 맞아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프리미엄 팬틴은 Pro-V의 업그레이드된 포뮬러로 손상된 모발을 케어해 윤기 있게 가꿔주는 프리미엄 라인이다. /팬틴 제공

가구침구업계 "고객과 소통 강화"

체험 마케팅·SNS 활용

가구·침구 업계가 체험 마케팅을 비롯해 SNS 활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업계는 체험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진행해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까사미아의 인테리어 브랜드 씨랩은 30일까지 샘플하우스 2호점을 공개 모집한다. 일정 기간 모델하우스처럼 다른 소비자들에게 집을 개방하는 대신 시공비를 최대 15% 할인해주고 까사미아 전 제품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씨랩 리모델링 서비스 신규 계약 고객 가운데 분양 후 5년이 경과한 강남지역 아파트 거주자다.

앞서 1호점이 열흘간 방문자 수 500명 돌파, 전월보다 계약률이 250%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브자리는 코엑스에서 '슬립앤슬립 포 키즈'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낮잠이불·매트·목쿠션 등 어린이용 수면용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 매장은 보름 만에 5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시몬스는 최근 공식 블로그를 오픈했다. 브랜드 스토리·제품 설명·침대 고르는 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김수[illegible]기자 ksj[illegible]

CJ올리브영, 셀렉션 캠페인

헬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은 김우빈을 앞세운 TV 광고를 시작으로 신규 광고 캠페인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광고 콘셉트는 '셀렉션(Selection)'으로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엄선된' '차별화된' 아이템을 쇼핑할 수 있는 CJ올리브영의 자신감을 담았다.

납심편의 테마는 '김우빈 따라잡기 셀렉션', 이성편은 '너 어디까지 이해질래 셀렉션'이며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셀렉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라비다 '파워셀 코어 크림' 선보여

코리아나화장품 라비다는 신제품 '라비다 파워셀 코어 크림'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독자 개발한 '파워셀 코어' 성분이 고농축 함유된 2중 기능성 파워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면 피부 세포의 힘을 강화, 늘어진 피부를 탄탄하게 가꿔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특히 피부 지질과 유사한 성분으로 구성돼 있어 밤 사이 수분 손실을 막고 세안 후에도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보습력을 높이고 윤름을 채워 모사한 동안 피부 결 만들어 준다고 업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은평 뉴타운 엘크루 오피스텔 모집공고(2차 안)

아동 안전 예방 지침서 나와

서울대병원, '가이드라인 3종 제작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서가 나왔다.

서울대 의대 국민건강지식센터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비의도적 손상사고 예방교육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라인' 3종을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3종은 부모와 실제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해 ▲가정 ▲어린이집 ▲어린이놀이 등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과 예방수칙을 읽기 쉬운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가이드라인 내용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식 개발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원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가 통계자료와 서울대에서 실시한 '아동 안전사고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특히 센터는 오는 15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센터 홈페이지에 PDF 파일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애니메이션 플래시 파일 형태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아울러 인쇄본은 대한소아과학회를 통해 각 지역에 배포된다.

한편 센터는 오는 5일 서울대 의대 국제관에서 가이드라인 제작과 관련된 제작 발표 공청회를 개최한다. /황재용기자

허리 아프면 일단 누워라

척추 질환마다 도움되는 자세 달라 숙지를

구부정하게 서 있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등 바르지 못한 자세는 허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자신의 척추 건강 상태에 따라 피해야 하는 자세가 각각 달라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된다.

먼저 짧은 시간 서 있거나 보행이 불편한 경우 의심할 수 있는 척추관협착증은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 따라서 이런 증상을 갖고 있다면 벽이나 의자 등받이에 살짝 기대 앉아야 한다.

또 계단 등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하게 서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30~40분에 한 번씩 앉아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외출 시 복대를 챙겨 허리에 착용해 지탱해주고 잘 때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치면 허리의 피로를 푸는 데 효과적이다.

반면에 허리디스크는 자세와 상관없이 허리부터 발까지 전체적으로 통증과 저림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허리디스크 환자에게는 오히려 앉는 자세가 가장 치명적이다. 앉는 자세가 몸 하중의 대부분을 허리 쪽으로 집중시켜 척추에 상당한 무게를 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등받이에 엉덩이를 대고 비스듬히 앉는 자세는 허리에 큰 타격을 입히고 좌안일을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웅크려 앉는 자세 등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앉을 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50분 정도 앉아 있었다면 10분간 서서 허리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누워서 무릎 오금 부위에 쿠션을 받치고 척추를 곧게 편 후 안정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3일 이상 장기적으로 누워 있으면 척추 주변의 근력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동원 연세바른병원 원장은 "급성 통증이 있다면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통증이 가라앉고 나면 가벼운 운동을 병행해 주는 것이 척추 건강에 이롭다. 만약 허리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waj1388@metroseoul.co.kr

노안, 안구건조증과는 달라

초기 증상 비슷하지만 방치하면 상태 심해져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노안은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안구건조증으로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시력 저하와 가까운 사물이 보이지 않는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피로감과 뻑뻑한 느낌 등이 안구건조증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안구건조증은 ▲노화 ▲과도한 눈물의 증발 ▲나쁜 결막염 ▲눈물샘 손상 등이 원인인 일종의 증후군으로 요즘처럼 바람이 차가고 건조한 날씨나 온열기구 사용이 잦아지면 증상이 악화되기 쉽다. 안구건조증의 회복은 휴식을 취하거나 인공눈물을 점안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반면 노안은 노화로 찾아오는 질환으로 초기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춰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초기에는 피로감과 함께 시야가 침침하게 흐려 보이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안구건조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게다가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외부에서 쉽게 눈이 시리고 눈꼽이 자주 낀다.

따라서 노안이 시작되는 40~50대의 중년층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노안과 안구건조증을 분별하고 적합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또 노안은 일반적으로 돋보기나 다초점 렌즈 안경을 착용하거나 노안 시력교정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초점 레이저수술이나 노안 각막 인레이수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구오섭 글로리서울안과 대표원장은 "노안과 안구건조증은 완연히 다른 질환"이라며 "만약 25~30cm 정도의 근거리 작업이 어려워지고 먼 것과 가까운 것을 교대로 볼 때 전환이 늦어진다면 노안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헬리코박터와 위 건강을 동시에…

'슈퍼 위가드', 5일 오전 8시15분 GS홈쇼핑에서 판매

국내 최초로 위 점막 내 헬리코박터 균 증식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신소재 제품 '슈퍼 위가드'가 5일 오전 8시15분 GS홈쇼핑을 통해 국내 첫 론칭 방송을 한다.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소재 연구개발 전문 회사인 뉴트리(대표 최미희)가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특허물질인 감초추출물(생리 활성 기능 2등급)을 주원료로 항산화 비타민 5종과 미네랄 2종 등을 함유하고 있다. 또 양배추 브로콜리 추출물과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유산균 9종 등을 부원료로 구성한 위 건강 전문 기능 식품이라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슈퍼 위가드'는 ▲위 점막 내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보호해 위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이중 기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개별인정 제2014-4호)을 받았다. 국내 판매권은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인 '디알엑스플러스(대표 자지원)'가 가지고 있다.

이 제품은 하루 2정, 1회 복용하면 되며 제품가격은 9만원(한 달 분)으로 유스랩(www.youthlab.co.kr)과 G마켓·옥션·11번가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5일 GS홈쇼핑 방송에서는 두 달 분 가격인 17만8000원에 세 달 분을 증정하는 2+1 특가 판매를 한다. /양성일기자

이대목동병원 '한·일 우정 음악회' 열어

여성암 환우들에게 희망 메시지 공연 무대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이 지난달 31일 병원 1층 로비에서 '여성암 환우를 위한 한일 우정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병원과 일본 민간 교류단체가 함께한 음악회는 여성암 환우들에게 한지의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대여성암병원 여성암 환우로 구성된 깨끼바야러스 합창단의 공연과 한빛관 사물놀이 연주단의 사물놀이, 한국종부발전 보령화력중창단의 합창 등이 펼쳐졌다.

또 일본에서 온 베니카나에회 연주단과 이대여성암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기도 했던 박영선 일본 타카마츠 한일문화교류센터장의 일본전통악기 나이소고또 연주 등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어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용기와 기쁨을 선사했다.

한편 베니카나에회 회원들은 박 센터장의 주치의였던 수술 이대여성암병원 교수에게 손수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면서 치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황재용기자

metro entertainment

김일성이 돼야 했던 평범한 아버지

「나의 독재자」의 설경구

지난 30일 개봉한 「나의 독재자」(감독 이해준)는 배우 설경구(46)가 왜 뛰어난 배우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영화다. 인생연대의 역할에 빠져들어 2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전대미문의 캐릭터로 깊이있는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나의 독재자」는 1972년 첫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의 대역이 존재한다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설경구가 맡은 김성근은 「리어왕」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아들 앞에 당당히 보여주고 싶은 무명의 연극배우다. 영화는 김일성의 대역이 된 김성근이 2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역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을 그렸다.

설경구가 「나의 독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특이한 소재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해준 감독에 대한 흥미 때문이었다. 1972년과 1994년 실제로 추진됐던 김일성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엮어낸 시나리오를 보며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영화"라는 재미를 느꼈다.

"처음 시나리오를 읽을 때는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 무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이 연상 참 코미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도 이 이야기를 코미디로 풀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런 점들이 제 생각과 비슷했어요."

영화는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여러 함의를 담고 있다. 또한 "배역에 잡아먹힌 배우"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배우의 삶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설경구가 김성근을 연기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바로 '아버지'였다. 아들에게 '인생의 무대'를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김성근을 이해했다.

"흔히 '배역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김성근이 김일성 역으로부터 못 빠져 나온 게 아니라 안 빠져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마지막 무대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영화를 보면 성근이 아들과 눈을 좀처럼 마주치지 않아요. 성근에게는 그것이 아들과 유일한 관계인 연극이었던 거예요."

난생 처음 노인 분장도 했다. 새벽부터 분장을 하느라 잠 한 숨도 못잔 채 연기를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촬영이었다. 배우는 얼굴의 세세한 근육의 움직임으로 크고 작은 감정을 전달한다. 그래서 자신의 피부를 감춰야 하는 특수분장은 연기의 장애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설경구는 늙은 성근의 감정을 관객에게 온전히 전하고자 과감히 감정을 표현했다.

"분장을 하면 아무래도 연기하는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조심스러움이 싫었어요. 조심하면 할수록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연기할 때는 분장이 찢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과감하게 표정을 지었어요. 분장팀이 촬영하는 동안 초긴장 상태였죠(웃음)."

「은교」에서 특수분장을 먼저 경험한 박해일의 배려도 많은 도움이 됐다. "제 마음은 가장 잘 알아준 건 해일이 밖에 없을 거예요. 감독님도 제 마음은 몰랐을 걸요(웃음). 분장 때문에 제가 나오는 장면을 먼저 촬영해야 했음에도 해일이는 자기 감정을 안 놓치고 제 연기를 받아줬어요. 다른 배우라면 자기 호흡을 다 가져간다고 분노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우리 나온 계리에 감사했어요."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대통령과의 면담 장면은 유난히도 긴장됐던 순간이었다. 감정 표현에 대한 무게감이 컸기 때문이다. "감정을 잔잔하게 절제하면서 터트려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표현 수위를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정상회담을 연기하다 「리어왕」의 대사까지 하려니 어떻게 감정의 톤을 변화시켜야 할지 고민이었고요. 설명도 할 수 없는 답답함이죠. 그래서 감독에게 예민하게 굴었어요. 물론 나중에 술 한 잔 하면서 사과했지만요(웃음)."

「소원」에 이어 「나의 독재자」까지 설경구는 오랜만에 자신의 전공과목과 같은 긴 호흡의 연기를 보여줬다. 다음 작품인 「서부전선」에서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50년대로 돌아가 남한군 병사로 변신한다. 다시 예전처럼 블록버스터급 영화로 돌아가는 건지 궁금증이 생기지만 설경구는 "「나의 독재자」와는 또 다른 같이가 있다. 뭔가 처절할 것 같은데 한 그런 영화"라며 말을 아꼈다. 분명한 것은 설경구의 연기는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김성근과 달리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한준희) 디자인/최송이

김일성이 된 무명 연극배우 역할
전대미문 캐릭터, 아버지에 초점
특수분장 개의치 않고 감정 표현

돌아온 MC몽… 음원차트 '올킬'

솔직 가사·피쳐링 지원사격 방송 활동 계획은 아직 없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사진)이 화제 속에 컴백했다.

MC몽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지만 음원 성적은 정반대다. 3일 오전 0시 발표한 새 앨범 '미스 미 오어 디스 미'는 타이틀곡 '내가 그리웠니'를 비롯해 수록곡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 '마음 단단히 먹어' 등이 온라인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총 13곡이 수록돼 있는 이번 앨범의 모든 가사는 MC몽이 썼다. 음악 팬들은 병역 기피 논란 이후 약 5년 만에 컴백하는 MC몽이 새 앨범에 어떤 이야기를 담았을 지 궁금해 했다.

'내가 그리웠니' 중 "뚜껑 퍼트린 놈들아 숨어" "부자들의 타고난 특기 직업 정신으로 물어뜯기" 등의 가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병역 기피 논란 당시 자신을 공격했던 무리들을 비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의 가사 중 일부인 "꼬마 점쟁이야 네가 딱 맞췄어"는 MC몽이 과거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했을 당시 어가 무당에게 "죽을죄를 지었으니 많이 벌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을 언급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MC몽의 심경을 대변한 가사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MC몽 새 앨범 'MISS ME OR DISS ME'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이번 앨범의 부제가 '그리움'인 점을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앨범명 '미스 미 오어 디스 미'는 그리움과 미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으로 사실상 진한 그리움을 내포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해석하는 자극적인 어조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뒤 그리움과 미움이 공존하 듯 강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으로 음악을 듣게 되면 이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그리웠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아파하고 단절된 삶을 살던 그가 그리움이라는 힘으로 다시금 스스로를 격려하며 좌절과 포기보다는 용기와 극복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여러 가수와의 협업으로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던 MC몽에 대한 음악 팬들의 기대도 이번 음원 성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메인 타이틀 '내가 그리웠니'와 서브 타이틀 '마음 단단히 먹어', '도망가자'는 각각 매드 소울 차일드의 진실, 에일리, 린이 피처링에 참여했다. 9번 트랙 '1984'를 제외한 모든 노래에 박지영, 허각, 개리, 효린(씨스타), 범키, 딘딘(걸스데이) 등이 MC몽과 함께 노래했다.

MC몽은 앨범 제목 그대로 자신을 그리워하거나 싫어하는 음악 팬들 사이에서 성공적인 컴백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TV에서는 당분간 그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방송 활동은 계획에 없다"고 전했다.

/김지민 기자 [email]@metroseoul.co.kr

싸이 연말무대 달군다

'올나잇 스탠드 2014' 개최 예정

가수 싸이가 올해 연말에도 자신의 콘서트 브랜드 '올나잇 스탠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싸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3일 오전 0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싸이 콘서트 '올나잇 스탠드 2014' 포스터를 공개하며 공연 소식을 알렸다.

싸이 연말 콘서트 '올나잇 스탠드 2014'

이번 공연은 다음달 19·20·21·24일 총 4일에 걸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19·20·21일은 1회씩 공연이 열리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2회 개최된다.

'올나잇 스탠드'는 싸이가 지난 2003년부터 연말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개최해 온 콘서트다. 파격적인 무대연출과 열정적인 퍼포먼스로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올나잇 스탠드 2013'에는 5회 공연 동안 총 6만여 명의 관객이 몰리며 인기를 누렸다.

싸이 측은 "항상 고객을 모시는 연주의 마음이나 이번에는 시아버지를 모시는 며느리의 마음으로 공연에 임하겠다"며 "제발 앙코르 중에는 집에 가지 말라"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싸이 콘서트 '올나잇 스탠드 2014' 티켓은 오는 6일 정오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김지민 기자

걸그룹 컴백 러시 '섹시 vs 큐트'

오는 11일 AOA―섹시한 캣우먼으로 변신
에이핑크, 핑크색 마카롱 티저 이미지 공개

이달 서로 다른 매력의 걸그룹이 컴백을 예고한다.

7인조 걸그룹 AOA는 3일 오전 0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두 번째 미니 앨범 '사뿐사뿐'의 재킷 이미지를 공개했다.

오는 11일 오전 0시에 발표될 예정인 새 앨범에서 AOA 멤버들은 캣우먼으로 변신해 색다른 섹시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초 섹시한 콘셉트의 싱글앨범 '짧은 치마'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AOA는 지난 6월 첫 번째 미니앨범 '단발머리'를 발표하며 차세대 인기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짧은 치마'와 '단발머리'로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한 AOA가 5개월 만에 새 앨범을 내고 트리플 크라운에 도전한다"며 "멤버들은 지난 활동보다 한층 더 성숙하고 여성스러워진 모습으로 섹시한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캣우먼을 콘셉트로 해 다채로운 무대 구성과 음악으로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OA가 섹시함을 무기로 승부수를 던졌다면 6인조 걸그룹 에이핑크는 귀여움으로 남성 팬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에이핑크 역시 3일 오전 0시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17일 정오에 컴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앨범에 대한 구체적인 콘셉트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에이핑크는 컴백 날짜 예고와 함께 분홍색 마카롱 사진을 함께 공개해 힌트를 제시했다.

에이핑크

에이핑크는 지난 3월 사랑스러운 소녀 콘셉트의 미니 4집 '미스터 츄'로 5개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며 상반기 그랜드슬램 달성에 성공했다. 또 지난 10월엔 일본에서 '노노노(NO NO NO)'로 데뷔해 오리콘 위클리 차트 4위에 오르는 등 순조로운 해외 활동을 시작했다.

AOA 미니 2집 '사뿐사뿐'

에이핑크는 소속사를 통해 "이번 앨범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새 앨범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 /김지민 기자

tvN 월화드라마
라이어게임
극한심리추적극
끝없는 배신과 반전,
그러나 필승법은 있다!
매주 {월,화} 밤 11시 tvN 방송
이상윤 신성록

로맨스? 코미디? 그 이상의 '미스터 백'

신하균 "살면서 놓치고 가는 것 생각해"

'내 생애 봄날'의 후속으로 MBC에서 새로 선보인 수목드라마 '미스터 백' 제작발표회가 3일 상암 MBC 방송센터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렸다.

'미스터 백'은 재벌회장 70대 노인이 어느 날 우연한 사고를 당해 30대의 젊은 나이로 변하게 되며 펼쳐지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담는다. 대한리조트 회장 최고봉 역과 30대로 변한 최신형 역을 신하균이 맡는다. 신하균은 극중 대한리조트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은하수 역의 장나라와 로맨스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출연 배우 신하균, 장나라, 박예진, 정석원, 이준과 연출을 맡은 이상엽 PD가 함께 자리해 드라마 소개와 촬영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드라마는 유쾌 발랄한 배우들의 연기와 판타지가 접목된 로맨틱 코미디 안에 다소 무거운 사회 현안들을 담았다. 첫 회에서 신하균이 사고를 당하는 장면은 다름 아닌 성판호이다. 장나라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청년을 대변한다. 젊은 세대의 노인과 부모에 대한 무관심을 환기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이에 이상엽 PD는 "큰 의도는 없었다. 이야기 자체는 로맨스지만 판타지에 코믹 요소가 많다. 시청자의 공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처했거나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찾으려 했다"며 "싱크홀 같은 경우는 마침 사고 신이 필요해서 고민하다 떠올랐다. 많은 요소들 중 실제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요소들을 찾다보니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캔디' 같은 성격의 여주인공, 재벌들의 이야기라는 점은 기존 드라마에 줄곧 등장했던 장치들이다. 특히 장나라는 지난 작품인 '운명처럼 널 사랑해'의 캐릭터와 겹친다는 우려도 있다.

이상엽 PD는 "원작 '올드맨'(작가 이조영)을 바탕으로 기획했다. 각색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캐럴', '미녀와 야수', '라이언 킹' 등의 작품에서 관계와 요소들을 차용했다. 익숙함은 분명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특정 고전이나 동화에 편중돼 있지 않다. 시나리오만이 아닌 배우들의 연기, 표정, 연출 등이 버무려져 전혀 새로운 극이 탄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인 역할을 하는 신하균은 분장에만 4시간이 걸렸다. 이상엽 PD는 "캐스팅 고민도 많았다. 최고봉 역을 신하균의 1인 2역으로 할지 노인 역 배우를 한 명 더 캐스팅할지 고민했다"며 "1, 2차만 찍었는데 익숙한 듯 연기해서 놀랐다. 처음에는 (신하균이) 1인 2역을 하는 줄 보르고 있어서 놀랐었다"고 설명했다.

신하균은 "유쾌하면서 공감이 많이 되는 작품이다. 살면서 놓치고 가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이력 역할, 노인 역할은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아 판단하기 쉽지 않다. 상상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미스터 백'은 오는 5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된다.

/김지민기자 kimsn1984@metroseoul.co.kr

"어렵지만 독보적인 작품"

'액자가 된 소녀' 찾는 할아버지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 후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KBS2 드라마스페셜 '액자가 된 소녀'는 어느 날 갑자기 액자가 된 손녀를 되돌리기 위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드라마 기자간담회에서 유종선 감독은 "신해철의 빈소를 갔었다. 영정 사진을 보는데 '콘서트라도 더 많이 갈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부분은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을 영정 사진으로 마주하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드라마는 소중한 사람이 사라지는 걸 변신이라는 판타지 요소로 풀어 냈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액자가 된 소녀'는 섬세한 연출로 구성됐다. 유 감독은 "할아버지 섬택(최종원)의 여정을 다른 각도, 다른 크기의 연극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최종원의 다양한 표정을 많이 찍고 싶었다"고 연출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원은 이날 "눈을 부릅뜨고 봐달라"며 "5년 공백을 깨고 이 작품을 하게 된 건 나를 찾기 위해서였다. 사랑 놀이를 하는 작품은 많은데 정작 '왜 사람이 고귀한 지'에 대해서 다루는 건 드물다. 예전에는 남녀노소가 함께 드라마를 봤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액자가 된 소녀'는 내용적으로은 가족이 즐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작품에서 액자가 된 소녀 세영 역을 맡은 정인선은 "액자가 되는 부분이 매력적이었다"고 출연 이유를 말하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임한 작품은 오랜만이다.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독보적인 작품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세영의 친구이자 아버지가 한 사고로 딸을 잃게 된 금필 역은 신인 배우 이재균이 맡았다. 그는 "심야에 방송하지만 한 시간만 늦게 자달라"며 "가족끼리 모여서 보면 다음 날 아침이 달라질 것"이라고 웃음을 자아냈다. 오는 9일 밤 12시 방송.

/권혁진기자 [illegible]

KBS2 드라마스페셜 '액자가 된 소녀' 최종원, 정인선, 이재균

그룹 서프라이즈 (왼쪽부터) 서강준 공명 [illegible] 판타지오

배우 그룹 서프라이즈 가수 선언

18일 첫 앨범 발표 … 아시아 투어도 계획

배우 그룹 서프라이즈가 오는 18일 첫 음반을 발표한다.

서프라이즈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서프라이즈가 일본·중국·태국 등 아시아 6개국 투어 개최를 기념해 18일 첫 앨범 '서프라이즈 1st 싱글-프롬 마이 하트'를 발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앨범은 히트메이커 조영수가 프로듀싱을 맡았으며 스타 작사가 김이나가 참여해 음악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프라이즈는 4일 뮤직비디오 촬영에 돌입하며 앨범 발매일에 맞춰 '서프라이즈 파티'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지난해 9월 드라마툰 '방과 후 복불복'으로 데뷔한 서프라이즈는 드라마·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내 최초 배우 그룹이다.

서강준은 SBS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룸메이트', KBS2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등에 출연 중이다. 이태환은 MBC 월화드라마 '오만과 편견'에서 꽃미남 수사관 강수 역을 연기 중이다. 강태오는 한국-베트남 합작 드라마 '오늘도 청춘'에 주인공 준수 역으로 캐스팅돼 촬영 중이다.

소속사 측은 "멤버들은 바쁜 연기 활동에도 녹음실과 연습실, 촬영 현장을 오가며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은 연기자들도 출연작의 OST를 부르거나 앨범을 내고 콘서트까지 여는 다재다능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늘 발전해 나가려는 신인 배우들의 새로운 도전으로 봐주길 바란다. 앞으로 국내 연기 활동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음반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 시장을 목표로 다양한 음반 프로모션과 해외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민기자 kimsn1984@

한효주, 남녀 20명과 로맨스?

'뷰티 인사이드' 사상 초유의 캐스팅 공개

영화 '뷰티 인사이드'(가제)가 한국영화 사상 초유의 캐스팅을 확정하고 그 쟁쟁한 명단을 공개했다.

'뷰티 인사이드'는 자고 일어나면 매일 다른 사람으로 깨어나는 남자와 그를 사랑하는 여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독특한 설정으로 기획 단계부터 관계를 모은 작품이다.

극중 남자 주인공 우진은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남녀노소와 국적을 불문하고 매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깨어나는 인물이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외로운 비밀을 간직한 캐릭터다. 영화 속에서는 등장 장면을 포함해 약 70여 명의 배우들이 연기한다.

그중에서도 국내 최정상 배우부터 충무로의 떠오르는 신예까지 약 20명의 배우들이 우진 역에 캐스팅돼 눈길을 끈다. 이범수·김주혁·김희원·유연석·조달환·이진욱·서강준·이동욱·김상호·김대명·도지한·천우희·박서준·이재준·김민재·이승천 등 남자 배우들은 물론 박신혜·천우희·고아성·우에노 주리 등 여배우들도 우진 역으로 얼굴을 비출 예정이다. 20명의 배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독창적인 캐릭터가 흥미롭다.

우진과 사랑에 빠지는 여자 주인공 이수 역은 배우 한효주가 맡았다. '공책', '왕이 된 남자 광해', '감시자들' 등 다양한 작품에서 꾸준히 연기력을 인정받아온 한효주는 이번 작품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수십 명의 상대 배우와 호흡하며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선한 로맨스를 선보일 것이다.

조연 캐스팅도 공개됐다. 1974년 고 이만희 감독의 '태양 닮은 소녀'로 한국영화계에 혜성처럼 등장했고 '삼포가는 길'로 대종상영화제 신인여우상을 수상한 문숙은 극중 우진의 어머니 역으로 37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또 '집으로 가는 길'과 '타짜-신의 손'으로 존재감을 나타낸 배우 이동휘는 우진의 하나뿐인 절친 상백 역을 맡았다. '나는 꼼수다', '레드카펫' 등 충무로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스틸러 이미도는 이수의 언니 은수 역을 맡아 한효주와 호흡을 맞춘다.

연출은 CF 감독 출신 백감독이 맡았다. 신선한 영상미로 완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뷰티 인사이드'는 오는 11월 크랭크인한다.

/장병호기자 solax@metroseoul.co.kr

한효주

모세스·람세스 '세기의 대결'

크리스찬 베일·조엘 에저튼, '엑소더스'서 연기

리들리 스콧 감독의 신작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하 '엑소더스')가 영화 속 두 주인공 모세스와 람세스의 대결로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엑소더스'는 형제로 자랐지만 적이 돼버린 모세스와 람세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결을 그린 대서사 블록버스터다. 출애굽기 혹은 탈출기로 알려진 성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주인공 모세스와 람세스는 이집트 왕국에서 형제로 자란 뒤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전장에 함께 뛰어드는 인물이다. 서로의 목숨을 구할 만큼 친형제나 다름없이 자랐지만 모세스는 자신이 400년간 억압받던 노예들을 이끌 운명임을 깨달은 뒤 스스로 신이라 믿는 람세스와 이집트 제국에 맞서게 된다.

이번 영화에서는 할리우드 대표 배우인 크리스찬 베일과 걸작조 배리을 지닌 배우 조엘 에저튼이 모세스와 람세스 역을 맡아 쟁쟁한 카리스마 대결을 펼쳤다. 이집트 제국의 강인한 장군에서 40만 노예를 이끄는 혁명가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세스, 그리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위엄있는 파라오의 모습과 동시에 형제로 자란 모세스와 맞서야 하는 인간적인 고뇌를 겪는 람세스의 갈등이 영화에 대한 흥미를 갖게 만든다.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홍해를 배경으로 한 두 주인공의 대결은 리들리 스콧 감독 특유의 스펙타클한 영상과 두 배우의 혼신의 연기로 담겼다. '쉰들러 리스트'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스티븐 자일리안,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를 잘 열한 다리우즈 월스키 촬영감독 등 할리우드 최고의 제작진들도 함께 했다. '엑소더스'는 다음달 3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어벤져스2' 예고편부터 기대감 ↑

확장판 공개… 내년 4월 개봉 예정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1차 예고편 확장판 공개와 함께 내년 4월 개봉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1차 예고편 확장판은 미국 ABC 방송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에이전트 오브 쉴드'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초 방송 전 공개하려고 한 1차 예고편 영상이 온라인에 먼저 유출되자 이번 방송을 통해 특별히 확장판 예고편을 공개한 것이다.

이번 예고편은 스타크 타워에 모인 어벤져스 팀 멤버들을 담아 눈길을 끈다. 로키의 셉터를 조사하는 블랙 위도우의 모습도 담겨 있어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악당 울트론이 어벤져스 팀에게 전쟁을 선전포고하는 장면은 전작과는 사뭇 다른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영화에 출연한 한국배우 수현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예고편 확장판에서는 어벤져스 팀과 함께 서있는 장면과 함께 한 장면이 더 추가돼 영화 속 활약을 기대하게 만든다.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1차 예고편 확장판 /영상캡처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지난 2012년에 개봉해 국내에서 707만 관객을 모은 '어벤져스'의 속편이다. 새로운 악당 울트론과 어벤져스 팀의 대결을 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병호기자

매튜 맥커너히 대표작 만난다

CGV 아트하우스 '이달의 배우' 선정

CGV 아트하우스는 11월 '이달의 배우'로 할리우드 배우 매튜 맥커너히를 선정했다.

매튜 맥커너히는 드라마 '멈춰지 않는 미스터리들'(1992)로 데뷔했으며 조엘 슈마허 감독의 '타임 투 킬'(1996)로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달콤한 백수와 사랑 만들기'(2006), '사랑보다 황금'(2008) 등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할리우드 대표 섹시 스타가 됐다.

또한 최근에는 스티븐 소더버그, 윌리엄 프리드킨, 마틴 스콜세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등 거장들과 작업하며 연기 내공을 쌓아왔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으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할리우드 대표 연기파 배우로 인정 받고 있다.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이번 '이달의 배우' 기획전에서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을 비롯해 '버드', '버니', '페이퍼 보이: 시렁수의 편지' 등 매튜 맥커너히의 대표작 4편을 상영한다.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CGV 오리, 13일부터 19일까지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 20일부터 26일까지 CGV 서면에서 진행되며 예매는 5일부터 가능하다.

CGV 아트하우스 극장팀 박지예 팀장은 "이달의 배우 기획전은 섹시 스타에서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로 거듭난 매튜 맥커너히와 경탄할 만한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병호기자

관절 관리를 위한 우슬초 활용법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초겨울이면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 있다. 바로 관절이다. 관절은 속도가 늦어지거나 기온이 떨어질 때 민감하게 반응한다. 비 오기 전이나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면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역시 급격히 늘어난다.

몸이 수축되어 근육과 인대가 뻣뻣해지고 경직되면서 제대로 관절을 받쳐주지 못하게 되고 통증이 심해진다.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관절액도 기온이 내려갈수록 굳어지기 쉬워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평소 관절 부위에 온찜질을 해주거나 반신욕 등의 온욕을 해주는 것이 좋다. 날씨가 추워지면 외부활동을 하는 동안 냉기가 몸에 스며들기 쉽다. 그럴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따뜻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 평소 아픈 관절 주변에는 핫팩을 대주는 것도 좋다.

관절이 아플 때 사용하는 본초에는 우슬이 있다. 산과 들에서 흔하게 자라는 풀로 차고 습한 기운이 많아 무릎이나 등, 허리가 아플 때 사용한다.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기운을 내리는 성질이 강해 염증이나 통증을 가라앉히지만 임산부가 먹는 경우 유산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민간에서는 이 우슬과 닭발 등을 함께 고아 먹는 경우가 많다. 우슬과 닭발이 모두 관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닭발을 고아서 나오는 콜라겐과 지방질은 관절 회복보다는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맞다. 과거에는 기력 없는 노인들이 주로 관절염을 앓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회복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먹지 않았나 싶다. 실제 평소 기력이 없고 걷기 힘들었던 노인 분들 중에는 우슬과 닭발을 함께 먹고 훨씬 건강해지는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 관절염은 노인병이라기 보다 직업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다. 특히 비만한 경우에는 몸의 무게가 관절에 부담을 주어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런 사람이 닭발을 함께 고아 먹을 경우 과도한 지방질 섭취로 인해 살이 더 찔 수 있으므로 닭발 대신 대추와 생강을 넣고 진하게 우려내 마시는 것이 좋다.

/김소형 본초직 박사(김소형 한의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9	7			4	
			8				9	2
	8			4	2			8
		7	1	5				
	1						3	
				6	8	7		
8			8	3			1	
1	9				4			
	5			9	1	2		

		4	1			9		
	1		6					
				9	3			8
	7				4	2		9
	9		7		2		1	
8		3	9				7	
5			4	1				
					9		8	
		9			8	7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면사 스도쿠 프리미어 (제타 고든 프랭크 룽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계혁 연구원
(02) 533-6817
www.saju4000.com

장례관련재단 홍보 일 해도될까요
합당한 보상 없더라도 노력하세요

hynin 남자 52년 5월 25일 음력 22시

Q 저는 중소기업에서 총무부나 물류 관리부에서 자재가 운전을 하다가 나와서 각종 다단계, 부동산 이벤트 회사에서 고객을 찾아 다녔는데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서 시급한 게 장례문화인데 그걸 올바르게 바꾸는 비영리 재단에서 홍보하는 일을 하면 정규직 직원으로 4대 사회보험을 받고 몸이 허락 하는 한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여 봉임료에 10만 원씩 해보고 나서 저에게 딱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장례문화 바꾸는데 동참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요?

A 귀하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나뭇조각과 같아 대개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생월지에 건록(建祿)과 나와 동급의 오행과 편인(偏印)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주도 하는데 사물에 대해 예민하고 지적 수준은 상당하지만 한평생 고생이 많습니다. 사주에 겁살이 많으면 온갖 고생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적절한 대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주변에서도 안타깝게 여기고 생각지도 못한 결이라 당사자가 받는 실망은 대우 크게 되지요. 본인의 운이 좋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운을 남에게 주게 되는 구조인 것이지요. 사주로 보아서는 준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당사자의 느낌은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난 시(時)에서도 월살(月殺)이 존재하는데 노력을 하고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상심에 빠지지 말고 잘 풀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시오. 월살(月殺)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불운이 자신에게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시간이 갈수록 잘 풀릴 운세이니 공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상관(傷官)이 있어 기존의 것을 응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데 어느 곳에 가던 자기주장을 관철하려고 하여 주변 사람이 경계하는 사유이 될 수 있습니다. 화술이 좋으며 설득력이 있으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그동안의 경력과 대면 관계 등 남을 도와주고 베푸는 정신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세요.

만사가 성공하기까지는 어려운 과정이 있으니 목표를 확실히 하여 하루하루를 값있게 보내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보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4일(음 윤 9월 12일) 김희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좋은 일 끝에 나쁜 일 생김~ 60년생 속으로 웃을 일이 생긴다. 72년생 무늬만 우군인 사람을 경계할 것. 84년생 평소 꿈꾸던 이성과 마주 앉는다.

소 49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61년생 마음 비우고 가늘고 길게 가라. 73년생 인생은 헤쳐거릴 해야 더 성숙해진다. 85년생 무식을 용감한 것으로 착각 말라.

호랑이 50년생 도산 찍는 일은 신중할 것. 62년생 꿈은 노력이 더해지면 현실이 된다. 74년생 희망이 없으면 판을 새로 짜라. 86년생 상사의 칭찬에 입술 귀 난다.

토끼 51년생 굽뜸인 일은 꽃을 피운다. 63년생 상대방 의중을 잘 파악할 것. 75년생 괄목한 성과에 박수가 쏟아진다. 87년생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

용 52년생 항보할 땐 통 크게 하라. 64년생 노력한 것은 하나씩 결실 맺는다. 76년생 탐나는 애장품을 발견하고 두근두근~ 88년생 밋밋한 삶엔 자극제가 필요하다.

뱀 53년생 기획한 일 분위기 무르익는다. 65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자. 77년생 꼬였던 혈사는 극적으로 타결된다. 89년생 아금먹고 결단을 대질 땐 귀를 닫아라.

말 42년생 특혜는 정중히 사절할 것. 54년생 척하면 척하는 배우자가 좋다. 66년생 모지럼 훈풍에 이 행복 영원해라~ 78년생 휘범감 가르침 실천하면 손해 없다.

양 43년생 든 문제는 해결 불투명하다. 55년생 힘이 달릴 땐 뭉쳐서 대처하라. 67년생 어려움 속에서 새 희망이 움튼다. 79년생 부당한 지시는 당당히 거부하라.

원숭이 44년생 지난 사한 들추시지 말라. 56년생 잡힘이 원활하면 손해만 본다. 68년생 자녀의 애교에 웃음이 터지는구나. 80년생 돈이 궤어도 인간적 여유가 우선이다.

닭 45년생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57년생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말라. 69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81년생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라.

개 46년생 자녀의 권리 다니지 말라. 58년생 문서일은 당분간 미루는 게 좋다. 70년생 검문이 난 일엔 물가뭉뚱 말라. 82년생 간절히 원하던 업던 길도 생긴다.

돼지 47년생 강경한 주장은 역공 부른다. 59년생 활우지일수록 꽃씨를 뿌려라. 71년생 자신감만 잃지 않으면 기회는 또 온다. 83년생 현재 상황에 만족할 것.

슈틸리케 "박주영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

박주영

슈틸리케 감독

중동 원정 나설 태극전사 발표… 유럽·중동리거 13명 포함

중동 원정길에 나서는 축구 국가대표팀 2기 명단이 3일 발표됐다. 공격수 박주영(29·알샤밥)과 골키퍼 정성룡(29·수원)이 대표팀에 복귀해 눈에 띈다.

울리 슈틸리케(독일) 감독은 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14일에 있을 요르단전과 18일에 있을 이란전 원정 경기에 출전할 국가대표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명문 구단 알샤밥으로 이적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박주영은 브라질 월드컵 이후 다시 대표팀에 복귀했다. 공격수로는 이근호(29·엘자이시), 조영철(25·카타르SC)이 박주영과 함께 선발됐다. 미드필더에는 기성용(스완지시티), 이청용(볼턴), 손흥민(레버쿠젠), 한국영(카타르SC), 남태희(레퀴야SC), 구자철(마인츠), 김민우(사간 도스), 한교원(전북) 등이 발탁됐다.

수비수에는 장현수(광저우 푸리), 김창수(가시와 레이솔),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곽태휘(알힐랄), 김진수(호펜하임),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차두리(서울), 박주호(마인츠)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골키퍼는 정성룡과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김승규(울산) 등이 뽑혔다. 공수를 막론하고 중동리그와 유럽리그에서 활약 중인 태극전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22명 가운데 유럽 리그 소속이 7명, 중동리그 소속 6명, 국내 K리그 소속 4명, 일본 리그 3명, 중국 2명 순이다.

지난 10월 파라과이와 코스타리카 평가전과 비교하면 수비수 김기희·김주영 이용 홍철이 제외됐고 대신 김창수·김진수 홍정호가 합류했다. 공격진에는 박주영·이명주·김승대·이동국이 빠진 대신 이근호·구자철·박주영이 합류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부임 당시 "꾸준히 리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를 선발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에 지난달 A매치에서는 박주영을 부르지 않았다. 당시 박주영은 소속팀을 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박주영은 지난달 18일 알파이살리의 리그 경기에서 첫 골 맛을 봤고 25일 시즌 두 번째 경기에서도 골을 만들어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두 경기는 모두 후반 교체 투입으로 경기장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달 31일에는 이적 후 처음 선발로 기용되는 등 점차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번 대표팀이 아시안컵 최종 명단을 발표하기 전 마지막인 만큼 박주영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최근 경기의 요약과 정보만으로는 박주영을 아시안컵에 소집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선발했다"고 발탁 이유를 밝혔다.

잦은 구설에 올랐던 박주영은 A매치 66경기에 출전해 24골을 터뜨렸다. 부상 중인 이동국(전북)과 김신욱(울산)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기명단 5명에는 신화용(포항 GK), 윤석영(퀸스파크 레인저스), 홍철(수원·이상 DF), 박종우(광저우 푸리), 이명주(알아인·이상 MF)가 포함됐다.

대표팀은 오는 10일 소집될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맨시티 '맨체스터 더비' 연승 행진

맨유에 1-0 승… 리그 3위 도약

잉글랜드 프로 축구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체스터시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1-0 승리를 거뒀다.

맨시티는 2일 영국 맨체스터의 이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세르히오 아구에로(**사진 가운데**)의 결승골을 지키며 승리를 따냈다.

이날 경기에서 맨유는 전반 39분에 수비수 크리스 스몰링이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며 힘든 경기를 펼쳤다. 결국 10명이 경기를 소화하며 열세를 이기지 못한 채 후반 18분 가엘 클리쉬의 패스를 받은 아구에로의 한방슛에 실점했다. 경기 후반 루니의 맹공이 이어졌지만 맨시티 골키퍼 조하트의 선방에 골은 터지지 않았다.

맨유는 10라운드까지 3승4무3패 승점 13점에 그쳐 1986년 이후 28년 만에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이후 데이비드 모이스 감독을 새로 선임했으나 7위에 그치자 1년 만에 루이스 판 할 감독에게 다시 지휘봉을 넘긴 맨유다. 하지만 현재 순위는 20개 구단 가운데 10위에 머물고 있다. 8승2무로 선두인 첼시의 승점은 26점이다.

맨유는 판 할 감독을 새로 선임하며 앙헬 디 마리아(아르헨티나), 라다멜 팔카오(콜롬비아), 후안 마타(스페인) 등 쟁쟁한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다. 유로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맨유 선발 11명의 이적료를 모두 더하면 무려 2억4000만 파운드(약 4121억원)나 된다"며 "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고 액수"라고 맨유의 고비용 저효율을 꼬집었다.

맨시티는 이날 승리로 맨유를 상대로 한 리그 4연승을 거뒀다. 맨시티는 승점 20으로 첼시와 사우샘프턴(승점 22)에 이어 리그 3위에 랭크됐다. /김학철기자

DNA가 다른 삼성과 넥센의 KS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4일부터 2014 한국시리즈가 열린다. 정규리그 4연패를 달성한 삼성과 창단 처음으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넥센이 자웅을 겨룬다. 인천아시안게임 때문에 일정이 늦은데다 쌀쌀한 날씨 탓에 콜드시리즈 우려가 있지만 열기만큼은 뜨겁다.

전통적인 라이벌 대결이 아니면서도 대단히 흥미로운 대결이다. 삼성이구단의 뒤에는 국내 경제를 이끄는 삼성그룹이 버티고 있다. 프로출범부터 그룹의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아 일류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그룹의 자금절감 정도로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넥센은 든든한 모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네이밍스폰서(넥센 타이어) 등 다양한 스폰서를 유치해 구단을 꾸려가고 있다. 내실있는 경영으로 넥센을 정상권으로 올려놓은 이장석 대표의 노력과 땀이 배어 있다.

감독들도 마찬가지이다. 류중일 감독은 프랜차이즈 스타로 선수부터 코치시절까지 줄곧 삼성 유니폼을 입었고 감독 지휘봉을 물려받았다. 구단의 탄탄한 육성 시스템과 스카우트, 그리고 견실한 팀 운영을 통해 통합 4연패에 도전하고 있다.

염경엽 감독은 태평양 시절부터 주전이 아닌 백업요원이었다. 은퇴 후에 코치도 되지 못했다. 매니저, 스카우트, 운영팀장까지 궂은 일을 하며 프런트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야구공부를 열심히 했고 명석한 두뇌를 앞세운 디테일 야구로 성공적인 지도자 길을 걷고 있다.

삼성은 이승엽으로 대표되는 엘리트 선수들이 많고 넥센은 서건창 등 인간승리형 선수들이 보인다. 삼성에다 넥센은 서로를 꺾고 싶게 여긴다. 전문가들은 큰 경기 경험이 풍부한 삼성의 우세를 점치면서도 메가톤 앞세운 넥센이 삼성의 4연패를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가을승자를 향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OSEN 야구전문기자

프로농구 전적 (3일)

동부	25	18	26	16	85
오리온스	18	27	12	21	78

프로배구 전적 (3일)

대한항공	3	1	LIG손해보험

HNT 하나투어
H Wedding
그여자, 그남자가 선택한 최고의 결혼준비!
하나투어
결혼 대박람회
찾아 오시는길
하나투어 결혼 대박람회
일시 2014년 11월 15일(토요일)~11월 16일(일요일)
장소 호림아트센터(압구정 로데오역 도보 5분거리)
시간 오전 10:00~오후 7:00
상담문의 02)2127-1234